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	코스닥	↓
6820.60 (-463.81)		791.84 (-37.59)	
금리 (국고채 3년)	↓	환율 (원·달러)	↑
3.848 (-0.018)		1487.00 (+8.50)	

한국엔컴퍼니그룹
글로벌
하이테크 그룹 도약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m-커버스토리

“공급 과정마다 병목… 금융·세제지원 중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정부, 공급·금융·세제 국민제안
“비아파트 공급에 공감대 형성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약”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연례 토론회가 마무리 되면서 국민의 관심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로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은 물론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국민 제안을 열어둔 상태다.

정부가 ‘다공(다치고 공급)’이라고 할 만큼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갈 길은 멀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토론회 모두 발제를 통해

“주택공급은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입주까지 파이프라인 흐름으로 봐야하는데 지금은 과정마다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데는 금융·세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비(非)아파트의 경우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지만 대출 등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은 건축 규제와 대출, 세금,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파트와 같이 규제지역에 묶여 대출 제약도 크고, 현실적으로 기금이나 보증 상품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컸지만 실제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보니 규제 완화 목소리만 가득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하는 방안만이 우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찬반 논란이 격화됐던 분야다. 이미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풀자니 집값이 걱정이고, 계속 조이자니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가계

부채 총량규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다.

이대열 한국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은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나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소득과 자산 규모만으로 대출을 결정하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 유무만 갖고 주택 구매가 결정되며, 이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미군 전사자 발생에 이란 방공시설 공습 美-이란, 보복 난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진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군 전사자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확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양측이 맺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한국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한국 오후 12시30분)까지 다섯 시간 남짓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란의 해안감시 시설과 방공 시설, 미사일·드론 창고 등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앞서 17일 요르단 아즈라크 소재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탄도미사일·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에 해당 기지에 복무하던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양국 종전 MOU 이미 효력 상실
북무 중 미군 2명 숨지고 1명 실종
美 트럼프 지시로 이란시설 타격
발전소·교량 등 기반 폭격 경고

2월 말 이후의 중동전쟁에서 미군 전사자가 나온 것은 양측이 4월 초 휴전을 선언한 이래 처음이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전사자 수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개전 다음날인 3월 1일 쿠웨이트 제103원정지원사령부 파격으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부상한 장병 1명이 치료 도중 숨졌다. 3월 12일에는 아라크 서부에서 KC-135 공중급유기가 추락하면서 6명이 사망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내건 조건에 이반 주말(7월 19일)까지 이란 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 및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서면 성명이 이란 국영 TV를 통해 전해졌다. 모스타바는 “미국이 종전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은 전쟁 재발과 관련해 “미국의 부정적, 불합리, 신랄하기 어려움, 비협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이란 국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주말 공습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이란 호르무즈간 주의 항구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도 시시리크와 해협 입구에 위치한 케슬, 내륙도시 하자바드 등이 각각 공격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쿠팡 인천 물류센터 27시간째 화재진압 중

19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소방당국이 전날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54분쯤 발생한 화재는 2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1

“돈 있으면 혼자 산다”… 1인 가구 74% ‘현재 삶에 만족’

KB금융, 2026 1인 가구 보고서
삶 만족도 2년 전 보다 2.3%p ↑
1인 가구 805만 가구, 전체의 36%
응답자 58% ‘1인 생활 지속할 것’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만족도는 물론 향후 지속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 전반에서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누렸고, 증시 상황에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에도 나섰다.

19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73.5%로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2.3%포인트(p) 높아졌다.

세부 부문별로는 ‘공간·환경’이 79.5%로 가장 높았고 ▲여가생활 74.8% ▲인간관계 62.4% ▲경제력 5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6개월 이상 1인 생활을 이어가며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만 25~59세 남녀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현재 국내 1인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가구 표준인 3인 가구(18.8%)와 4인 가구(12.7%)를 합친 것보다 비중이 더 높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1인 가구를 일과 소비, 자산운용 전반에서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한 주제로 조명했다”며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정 세대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어느 시점에 마주할 수 있는 삶의 한 형태”라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1인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58.3%로 절반을 넘었고, 지속할 의향이 ‘낮다’는 응답자 비중은 8.9%에 그쳤다.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61.4%)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가 15.9%를 차지했다. 다만 현재의 ‘경제적 안정’(24.0%)과 미래의 ‘건강’(25.7%)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아 자율성과 취향성이 교차하는 구조적 특성을 드러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추미애, 檢보완수사 일부 존치 추장에 “文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사진 뉴스1
▲與, 20일 금융위·금감원 당정 간담회…‘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보고 받을 듯

▲국힘 “與, 2차 종합특검 연장하면서…‘참정권 특검’은 왜 미루나”
▲北, DMZ 인근에 방사포 지원시설 다수 건설 정황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60% 첫 돌파…남자도 46%
▲폭염에 누적 온열질환자 1000명 돌파…사망자 3명

韓 증시, 대형주 위주 상승장 지속 코스피-코스닥 수익률 격차 심화

코스피 상승에도 코스닥 부진 지속
ETF 상품 등 투자성과 크게 벌어져
“정책 통한 투자심리 개선 필요 시점”

코스닥시장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14.44% 하락하며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61.85% 오른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등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전개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이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5월 15조6000억원에서 6월 10조원, 이달 들어 16일까지 6조9000억원으로 줄어들며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콤 상장지수펀드(ETF)정보 플랫폼 ‘ETF CHECK’에 따르면 이날 기준 KODEX 코스닥150의 1개월 수익률은 -23.54%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액티브 ETF인 ▲TIME 코스닥액티브(-22.99%) ▲KoSAct 코스닥액티브(-22.77%) ▲PLUS 코스닥150액티브(-23.00%) 등의 수익률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성과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같은 기간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가 각각 44.90%, 44.85%씩 떨어졌다. 이외에도 ▲RISE 코스닥150 선물레버리지 -45.03% ▲HANARO 코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전일보다 45.45포인트(5.80%) 상승한 829.43으로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스닥150선물레버리지 -44.71% ▲KIWOOM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43.98% 등이 40%대 손실을 기록 중이다.

반면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70%) ▲KIWOOM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29%)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29%) ▲RISE 코스닥150선물인버스(-24.77%) 등은 같은 기간 수익률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로만

쏠리면서 반등 기미를 되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AI, 반도체 등으로 쏠린 만큼 코스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코스닥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서학개미이자 동학개미인 국내 개인 투자자 특성상 국내 증시에서 개인의 순매수는 글로벌 AI 테마에 부합되는 업종으로만 지속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는 국내외를 넘나들 수 있어 국내로 들어온 개인 자금의 순환매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아닌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시총이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232곳(스팩 제외·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코스닥지수가 13.57% 하락한 이달에는 246곳으로 증가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시장 내 쏠림이 지속되면서 역대급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에 따른 수급 쏠림 완화와 추가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 심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휘발유 등 기름값 9주 연속 하락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주보다 L당 15.5원 내린 1877.5원이었다. 19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홈플러스, 2000억 마련… 법원 항고절차

메리츠금융 대출… 영업재개 기대감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기사회생 했다.

홈플러스가 대주주, 채권단, 노동조합과의 극적인 합의로 숨통이 트이며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정차권의 압박과 노조의 강경 투쟁이 이어지자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

김병주 MBK 회장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3사가 이를 전제로 대출을 최종 의결했다. 노조 역시 구조혁신안에 따른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이라는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영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홈플러스는 자금 고갈 등으로 인해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닫고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폐지 결정 이후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 1200여 명의 노동자와 700여 곳의 입점업체가 일터를 떠났고, 중소 협력사들의 미정산금도 평균 7억 7400만 원에 달해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대출금이 실제 집행되고 협력업체들과의 상품 공급 협의 및 매장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러도 8월은 돼야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홈플러스의 월평균 상품 매입비를 감안할 때,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9월 4일까지 약 50일간 전국 점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2100억~2200억 원에 달해 이번에 수혈받는 2000억 원을 웃돈다.

게다가 공익채권 규모도 지난해 3월 3328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1조 999억 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가 재개되면 점포별 운영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진존 사업부문의 매각(M&A)을 추진해 최종 회생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김용범 “단일종목 ETF, 상장폐지 어렵다”

(청와대 정책실장)

단일종목 ETF 상폐시 시장파장 우려
“부동산 강세 상황, 많은 국민께 죄송”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최근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 그 상품이 지금 10조원 이상(규모가)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거는(상장폐지는)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국은 레버리지 ETF 매매에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20주 단위로 거래하도록 하는 보완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ETF 상품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격차인 ‘괴리율’을 짚었다. 그는 “이 상품은 상승기에 도 물론 상승을 더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락기에는 두 배로 영향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분 동안에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 주문을 내다보니까 그게 단기간에 좁은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순식간에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 괴리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들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상황에 대해 “참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광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수요 압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공급이 단기간에 ‘뚝뚝’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용과 실거주가 아닌 두 개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1주택자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과 관련 “적정 수준이 얼마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단순히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는 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몇 가지 기준에 맞춰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예·적금 줄고 투자 늘고… ‘머니무브’ 뚜렷

>> 1면 ‘돈 있으면 혼자…’서 계속

1인 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경제·재무’가 67.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 52.8% ▲사회적응 35.2% ▲인간관계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은 식·주·여가 및 건강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향유했다.

식생활의 경우 1인가구의 중요 영역으로 떠올랐다. 새롭고 다양한 음식 시도, 비싸더라도 건강에 좋은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식문화 추구 등 2년 사이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식비’는 소득이 줄어도 유지하고 싶은 소비 영역을 묻는 질문에 최우선순위(42.5%)로 꼽혔다.

여가생활 역시 ‘혼자’ (52.2%) 즐기는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반반’ (30.0%)과 ‘타인과 함께’ (17.8%)를 크게 앞서며 혼자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즐기는 삶의 방식이 관철됐다.

주거는 형태는 ‘월세’가 4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가 23.8% ▲전세 2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4년과 비교해 ‘전세’ 비중이 6.6%p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3.7%p 늘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월세 비중이 66.5%에 달했다.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1인 가구 역시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나타났다.

‘예·적금’ 비중은 28.3%로 2년 전보다 7.8%p 감소한 반면 ‘주식·ETF’ 21.1%, ‘가상자산’ 3.5%로 각각 6.1%p, 1.3%p 상승했다. 소위 ‘빚투’도 늘어 대출을 통한 금융상품 투자 경험도 34.0%로 2024년보다 5.2%p 높아졌다.

향후 1년 안에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상품에서는 변화가 더 뚜렷했다. 향후 1년 안에 가입 의향이 가장 높은 상품은 ‘국내 주식·ETF’ (42.1%)로 2024년보다 18.7%p나 상승했으며, 다음으로 ‘해외주식·ETF’가 37.8%를 차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규제로 묶자 공급 말랐다… 서울 20개구 집값 전고점 돌파

m-커버스토리

실수요 불안에 매수세 확산

서울 집값 반년 만에 5.74% 상승
수도권 3.66% 올라 강북까지 확산
전국 전셋값 2.69% 공급 부족 심화
비규제지역·오피스텔로 풍선효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단기 영향 제한적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던 초강력 규제책은 기존 공급 물량마저 증발시켰고, 불안한 심리를 더 자극했다. 수도권 매매는 물론 최근 몇 년간 안정됐던 전·월세 시장까지 공급 절벽에 상승세가 가팔라졌고, 비규제지역과 오피스텔이 부각되는 등 ‘풍선효과’도 막지 못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먹혀 들지 않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1.87%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 -1.12%로 침체됐던 지방 매매 시장도 올해 들어서는 0.18%를 기록 중이다.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반년 만에 5.74%에 달했고, 수도권 역시 3.66%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울은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권까지 상승세가 확산됐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과거 최고가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 수도권도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반도체 산업벨트 조성 등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6·27 대책으로 대출을 조였고, 9·7 대책으로 공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과 금리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급 확대 방안을 내놔다. 이어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를 재개했지만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북·금천·도봉·중랑·노원 등 5곳을 제외한 20개구에서 2021~2022년 기록한 전고점 가격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들어 전고점을 돌파한 강서·은평·성북·관악·구로 등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중저가 지역으로 내 집 마련 수요층이 집중된 결과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전·월세 불안, 추가 규제 우려감 등이 복합되며 무주택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하저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지역도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으로 인해 최근의 실수요 유입 현상이 이어질 경우, 하반기 중 서울 25개구 모든 지역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초 이후 성북구가 9.36%에 달했고, 강서와 구로가 각각 8.26%, 8.06%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동탄의 아파트값이 15.29%나 올랐고, 안양 동안(11.05%)과

용인 수지(10.68%), 광명(10.63%) 등도 상승률이 10%를 넘어섰다. 경기 화성 동탄와 기흥, 구리 등 3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규제 지역 밖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뚜렷하다. 수도권외 비규제지역과 오피스텔 시장에는 아파트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전세 시장 역시 심상치 않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이미 2.69%나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률은 각각 4.22%, 5.72%에 달한다. 입주 물량 감소와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월세 선호 확대 등이 겹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세 시장의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앞으로 금리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와 함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팩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단번에 바꾸는 이벤트라기보다 긴축 사이클의 시작을 확인하는 신호”라며 “이미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 번의 금리 인상만으로 매물 출회가 급격히 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는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가격 조정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주택 수보다 가액기준 거론

>> 1면 ‘공급 과점마다…’서 계속

일단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운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 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라서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

은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해 부담을 더 지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해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중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묻는 즉석 의견조사에서는 30억원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30억원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표현한 만큼 기준선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과세 기준 역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인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서 중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안상미 기자

“무주택자·생애최초 대출규제 풀어달라”

정책제안 1638건 중 주택금융 752건
청년·실수요자 중심 완화 요구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이 1600건 넘게 들어왔다. 가장 많은 제안이 들어온 분야는 ‘주택금융’이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7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1638건의 정책 제안이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금융 분야는 752건, 주택공급(규제)은 492건, 부동산세제 343건 순이었다. 해당 홈페이지는 부동산 토론회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 중이다.

제안이 가장 많은 주택금융 분야에선 특히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의 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10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에서는 매수세와 호가가 함께 오르고 있다. /뉴시스

출 총량 관리 속에 최근 은행권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휘청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면서 내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된다는 점도 이유에 속한다.

하지만 청년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는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2030세대의 주택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은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에서 나오고 있으니, ‘금수저만 집 사라는 거냐’는 비판은 정부로서는 빼이룰 수밖에

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또 주택공급(규제) 분야에서는 용산구 제업무지구 관련 제안이 눈에 띄었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제안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이번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주택자 적용 여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금부담에 찬성하면 1년, 반대하면 2년을 입력해달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즉석 투표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인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거지,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예 진기자 syj@



metro

‘N잡’ 뛰는 1인가구… 즉흥보다 계획 소비

KB금융,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
10명 중 6명 부수입 활동 애플테크 75%

1인 가구는 10명 중 6명이 ‘N잡’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혼자 살면 돈을 낭비할 것이란 인식과 달리 1인가구의 소비는 즉흥보다는 계획, 품질보다 가성비, 브랜드보다 자기 취향을 중시했다. 19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본업 외 부수입 활동인 ‘N잡’ 활동 참여율은 59.6%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이후 17.6%포인트(p)나 높아졌다.

시작 계기는 ‘자발적인 이유’(79.5%)였고, 주된 동기도 ‘여유·비상자금 마련’(40.4%)으로 절박한 생계보다 미래 대비 성격이 강했다.

부수입 활동은 1개가 72.2%로 가장 많았고, 2개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N잡 활동은 ‘앱테크(앱 출석 체크, 포인트 적립 등)’로 75.1%를 기록했으며, 20대의 경우 비중이 89.0%에 달했다. ‘소셜 크리에이터(블로거 등)’가 11.7%로 그 뒤를 이었으며 ▲편의점·요식업 등 서비스직 종업원(아르바이트) 8.0% ▲배달 라이더 5.5% ▲문서/원고 작성 및 번역 5.4% ▲온오프라인 판매(쇼핑몰, SNS 등) 5.0% 등도 답변으로 나왔다.

N잡 1인가구일수록 삶 전반에서 더능

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자기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N잡 개수에 따라 0개 62.6%, 1개 78.8%, 2개 이상 89.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투자에서도 ‘손실 위험을 감내하거나’ 혹은 ‘적극 수용’하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을 합한 공격적향적 성향은 N잡 0개 23.9%, 1개 32.0%, 2개 이상 35.8%로 N잡 개수와 함께 강해졌다.

1인가구의 소비 성향은 계획성과 실용성, 주관적 취향을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계획적 소비’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중은 47.2%로 ‘즉흥적 소비’(24.1%)의 두 배였고, ‘실속·가성비 우선’(55.4%)은 ‘품질·완성도 우선’(16.2%)의 세 배가 넘었다. ‘주관적 취향 우선’(51.1%)은 ‘브랜드·신뢰 우선’(19.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세부 기준은 영역에 따라 달라졌다.

큰 돈이 드는 ‘주(주거·가전·인테리어)’에서는 ‘계획적 소비’(58.6%)를 꼽은 응답자 비중이 ‘즉흥적 소비’(12.8%)를 크게 앞섰으며 격차가 가장 컸다. ‘의의류·패션·뷰티’에서는 ‘실속·가성비 우선’이 54.0%로 가성비 비교가 우세했다.

반면 ‘식(식비·외식·집밥)’과 ‘여가(취미·여행·경험)’에서는 ‘주관적 취향’이 각각 53.5%, 54.1%로 가장 많았다.

/안상미 기자



metro

‘타이어·열관리·배터리’ 3박자… 글로벌 하이테크 그룹 도약

28 한국엔컴퍼니그룹

Hankook & Company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조현범 회장이 추구해 온 글로벌 하이테크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핵심 사업인 타이어,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과 함께 배터리(납축 전지)를 그룹의 주요 성장 축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며 그룹 전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엔 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부문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9.6% 증가한 10조 3186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한온시스템 인수 첫 해인 지난해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 노력이 성과를 내며, 수익 구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도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Hankook) 배터리(납축전지)’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타이어 타이어 매출액 10.3조
전년비 9.6% ↑, 창사 10조 돌파
전기차 타이어 ‘아이온’ 기술 기반
북미·중동·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美 테네시 공장 생산 비중 높여
관세·물류비 부담 ↓… 실적개선 기대**

◆ 한국타이어, ‘아이온·다이나프로’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입증

한국타이어의 세계 최초 플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이 올해에도 글로벌 무대에서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보급한 전기차 타이어의 교체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온’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상용화 시대를 예견하고 2010년부터 원천 기술 확보에 매진하며 ‘아이온’의 기술 토대를 마련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R&D 혁신을 거듭한 결과 독자 기술 체계 ‘아이온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ION INNOVATIVE TECHNOLOGY)’를 정립하고 2022년 유럽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 ‘아이온’ 브랜드를 론칭하며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타이어 후원 2026 WRC 포르투갈 랠리 - 현대 셀 모비스 월드 랠리 팀 주행모습.

‘다이나프로(Dynapro)’는 SUV와 픽업트럭 본고장 북미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북미 시장은 아웃도어·오프로드 레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해 실용성이 뛰어난 SUV와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기술력이 탑재된 ‘다이나프로’ 제품군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Hankook)’의 혁신 테크놀로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톱티어(Top Tier)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 출시로 가장 진보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 주요 스포츠 구단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혁신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수익성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상반기 유럽과 국내에서 약 3%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시장에서 2~3% 수준의 추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원재료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테네시 공장의 생산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기존 테네시 1공장에 이어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와 트럭·버스용 타이어 생산설비를 추가하고 있다. 증설이 완료되면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500만본과 트럭·버스용 타이어 100만본의 연간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현지 생산비중이 높아지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타이어 이용관 한국사업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 속 고하중·고토크 차량의 겨울철 안전 확보와 계절별

타이어 교체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길 원하는 전기차 고객의 니즈를 확인했다”며 “‘아이온 플렉스 클라이밋’은 한국타이어의 EV 기술력이 집약된 상품으로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 3%대 영업이익률 유지
지난해 연간 매출 10.8조, 8.9% ↑
열관리 기술 포트폴리오로 차별화**

**한국, AGM 배터리 안정적 성장세
100개국, 450개사 판매 네트워크
납축전지 업계 중 美 생산거점 ‘유일’**

◆ 한온시스템, 전사적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 성과 창출

한온시스템은 한국엔컴퍼니그룹 인수 합병 이후 추진해 온 전사적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3분기(3.5%)와 4분기(3.4%) 연속으로 3%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10조 8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성장했다.

아울러 유상증자를 통해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에도 원가율 개선 및 수익성 회복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에는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높은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자본 시장에서의 조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4월 16일 진행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액 대비 약 10배 수준의 수요를 기록하여 당초 15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발행금액을 22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연기관(ICE) 및 하이브리드(HEV) 모델의 생애주기(Life Cycle)가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기존 주력 제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유럽 고객사의 전동화 확대 및 하이브리드(HEV) 수요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온시스템은 내연기관(ICE)부터 하이브리드(HEV), 순수전기차(B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수소전기차(FCEV)에 이르기까지 전 차종을 아우르는 열관리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기차 열관리 분야에서는 선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동화 전환이 재가속될 경우 이미 마련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국엔컴퍼니 ‘한국 배터리’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한국(Hankook) 배터리 사업’, AGM 배터리 생산·판매 확대

한국(Hankook) 배터리 사업은 한국엔컴퍼니그룹 고유 브랜드 ‘한국(Hankook)’의 패밀리 브랜드로서 타이어·자동차 열관리 시스템과 함께 그룹의 핵심 동력으로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대외 환경 악화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프리미엄 상품인 AGM(Absorbent Glass Mat) 배터리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프리미엄 성장 전략에 맞춰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약 100개국, 450여 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납축전지 업계 중 미국 현지 생산거점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미국 관세 영향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라인인 AGM 배터리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는 지난해 10월 조현범 회장의 브랜드 철학 하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 중인 그룹 통합 브랜드 ‘Hankook’ 아래에 ‘에너지·하이테크·미래’라는 배터리의 정체성을 담은 신규 태그라인인 ‘charge in motion’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Hankook’의 패밀리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고객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BI를 앞세워 프리미엄 AGM(Absorbent Glass Mat) 배터리 생산 및 판매 확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 마케팅 측면에서 유럽, 북미, 중동 등에서 열리는 주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여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엔컴퍼니의 배터리 사업은 최근 대외 환경 악화로 성장이 주춤했지만 주요 수익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1조 4576억원, 영업이익은 411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차량용 배터리 등 제품·상품 매출은 1조 44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1.7%를 차지했다. 특히 AMG 배터리 시장은 2023년 9100만대에서 2030년 1억 8400만대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1억 2200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고부가가치 배터리 제품 비중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 관세 등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도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견조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한국엔컴퍼니그룹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KT가 잇기에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있다

바다 속 해저 케이블부터
하늘 밖 우주 위성통신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온 KT

이제는 AX 인프라 위에
최적의 AX 서비스까지 더해
국가·산업·일상의 변화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시 3대 강국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종합특검 연장에 필리버스터 맞불… 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민주, 오늘 2차 특검 연장법안 처리
국힘 “추천권·위원장 양보 못해”
원 구성 협상도 장기간 교착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의 개최 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추가 연장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 원 구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으로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종합 특검 연장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종합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신청 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어나며, 특검 파견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 협치 정신을 저버린 채,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20일 본회의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

고 있다”며 “이에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맞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본회의의 개최 중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상정될 경우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다. 윤상현 국민의힘이 야당 측 필리버스터 1호 주자로 등판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

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신청해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 처리와 별개로 민주당은 제3자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민주당 몫으로 배분된 법제사법위원장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의 경우, 오로지 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하며 반대하는 상태고,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헌정 사상 두번째 상임위 독식도 집권여당으로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사안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울 예정이다. 오는 21

일엔 정부위에서 흠플러스 사태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황이다.

이외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갈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나 법안 성안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장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전대 내일 컷오프… 새 투표방식 변수 제헌절에도 ‘올공’… 張 행보에 당내 불만

1인 1표제·선호투표제 첫 도입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 추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오는 21일 실시되는 가운데,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예비후보들 사이의 여론전이 치열하다.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17일에 마감됨에 따라, 당 대표 선거는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예비후보로 총 5명이 등록했다. 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 직전 송영길·김용 예비후보와 관련 복당 시점과 당비 미납 등의 이유로 후보 적격성 논란이 최고위에서 일었으나, 당은 이들 후보의 피선거권 기준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김민석 예비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양보한 바 있는 송영길 예비후보가,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예비후보를 압박하는 구도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엔 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1표제와 선호 후보 순위를 적어 투표하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당심 잡기와 전략적 투표 호소 메시지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는 박선원·이건태·이성윤·김용·박성준·박승원·정민철·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신계륜·김형남 예비후보(기호순)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전당대회로 선출직 최고위원이 총 5명 구성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중 어떤 계파가 과반을 점할지도 주목받는다. 최고위원 예비후보 중에선 정청래 예비후보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예비후보, 최고위원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윤 예비후보, 최민희 예비후보가 친청계라고 알려졌다. 친명계는 박성준·서미화·이건태·김용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예비후보. /뉴시스

졌다. 친송영길계는 김영호·박선원 예비후보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열고 당 대표 후보 5명 가운데 3명, 최고위원 후보 14명 가운데 8명을 본선 진출자로 결정한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후보 1명에게 투표하는 1인 1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구체적으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35%,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한 명의 유권자가 후보 2명을 선택하는 1인 2표 연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본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1인1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치러진다. 경선 방식은 전국을 도는 순회경선으로 치러지며, 마지막 경선이 종료된 후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당의 결정에 따라 당 대표 선거 투표 한 번으로 선호투표제 방식을 적용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전략 지역인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에는 5% 가중치가 적용된다.

당 대표 예비후보들은 19일 전국을 돌며 당심에 호소했다. 김민석 예비후보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 안동시의 회를 방문해 “(희망은) 이미 대통령님이 심으셨고 저는 물을 보태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당대회 출마 후보 기탁금이 인상된 것을 비판하며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송영길 예비후보는 부산을 방문해 부산 호남향우회를 만나 “대통령이 ‘너무 실망했다, 이겨야 할 선거에서 져버렸다’라고 평가했는데도, 이전 지도부는 ‘잘했다,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안이한 시각이 있었다”고 정청래 지도부를 지격했다. 또한 “서울시장도 막판에 졌다”며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에 준결승을 진 느낌 든다”고 표현했다.

정청래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에게 후원금이 대거 입금된 것을 공개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지 총결집에 나섰다. 또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부인인 김정옥 여사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것을 공개하면서 “이해찬(전) 총리님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로가 있는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의 구호인 4통(4명의 대통령)통합을 이룩하겠다는 다짐도 굳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내부서 “당 쇠신 안 보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7월17일)에 정당 대표들이 다 모이는 국회 행사에도 불참하고, 올림픽공원(올공)으로 가 자신이 직접 쓴 손팻말을 나눠주며 부정 선거를 외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잠실 올공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와 수개표를 요구하는 장기 집회 및 점거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목걸이를 착용한 채 선거 현장을 찾았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지만, 한법 개정 등을 통한 독재를 자행했고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 장 대표는 ‘올공혁명’,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등을 직접 흰 종이에 써서 집회 참가자에 나눠줬다.

장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올공 시위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며 배재고 야구부 지역차별 응원 논란을 쟁점화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올공 시위를 세 차례 더 찾았다. 또한 지난 8일, 12일, 15일엔 각각 인천·부산·광주에서 열린 참정권 규탄 시위에 참석하며 장외투쟁에 열을 올렸다.

그간 정치권에서 장 대표의 ‘우클릭’으로 궤멸적인 패배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당선되며 보수 재건의 희망이 유권자에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정당 지지율도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거나 박스권에 갇히면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법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서명 전달식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표 후보 간 갈등, 부동산 정책 등 제1야당에 호재가 되는 사안들이 수면 위로 부각됐지만, 국민의힘의 원 구성 불참과 장 대표의 장외투쟁으로 이를 야당에 유리한 요소로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다.

급기야 5선 중진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표로서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 당을 바꾸는 게 급한데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권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외에 뚜렷하게 장 대표의 사퇴 목소리를 내는 중진 의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친한(한동훈)파, 소장파 의원 등 당원들에 의해 접수된 징계요구서를 심의하는 등 ‘징계 정치’로 인한 당 분열 양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올공 시위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를 ‘중도 확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당 분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당 대표의 중도 확장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도 확장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나와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게 중도 확장”이라고 했다. 또한 “중도 확장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나 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시민이 올림픽공원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데 이를 비판하면 그게 중도 확장과 반대라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올거예요, 더 원더풀한 인생이

NH **올**원더풀

지금까지 잘 달려온 당신, 앞으로의 시간이 더 원더풀해질 수 있기를!
금융 자산부터 건강 케어까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가치들을 한 곳에 담아
당신의 다음 인생을 더 믿음직스러운 혜택들,
더 빛나는 순간들로 채워갑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10월 추가인상 ‘기본 시나리오’… GDI·근원물가가 판가름

한은, 기준금리 2.75% ‘긴축’

금통위, 의결문에 ‘인상 기조’ 명시
성장흐름 따라 내달 인상 가능성
다음 인상시기 8월·10월 관심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올리면서 3년6개월 만에 금리인상(긴축) 국면에 들어섰다. 7월 인상이 1회성 인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다음 인상이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로 옮겨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인상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까지 명시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다 살아있는 회의, 라이브 미팅”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10월 추가 인상에서 나서는 경로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다만 신 총재가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도 선을 긋지 않으면서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와 다음 달 4일 나오는 7월 물가가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8월 연속 인상, GDI·근원물가가 가른다

신 총재가 8월 인상 여부를 판단할 핵심 지표로 직접 지목한 것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7월 근원물가와 생활물가다.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GDI는 13.2% 늘었다. 반

도체 수출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GDI가 GDP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신 총재는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이 수요 측 물가 압력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수요 쪽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금통위 전체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 흐름도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신 총재는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에 대해 “지금 판단으로는 너무 낮다”며 “8월 통방 때는 상당 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로 예상했던 GDP갭의 플러스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GDI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7월 근원물가와 생활물가가 좀처럼 둔화하지 않을 경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 ‘자전거 아닌 유조선’… 8월 쉬면 10월

다만 신 총재는 연속 인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상 속도와 관련해 “통화정책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큰 유조선을 타는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5월 금리 동결에 대한 설명에서도 데이터 의존적인 접근이 드러났다.

신 총재는 “그때(5월) 사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었다”며 “당시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중동 상황도 불확실한 차례 더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같은 판단 기준은 오는 8월에도 적용될 수 있다. 2분기 GDI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7월 근원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은이 8월에는 금리를 유지하고 10월까지 추가 데이터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원들의 조건부 금리전망은 연내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실는다. 지난 5월 점도표의 21개 점 가운데 10개가 3.00%에, 7개가 2.75%에 찍혔다. 3.25%와 2.50%에는 각각 2개가 제시됐으며 중간값은 3.00%였다. 7월 기준금리가 2.75%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이다.

신 총재는 “이번 내부 논의도 점도표와 대체로 부합하고 새로 입수한 정보가 반영됐다”며 “구체적인 전망은 8월 금통위 이후 공개될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출금리 ‘들썩’… 주담대 8% 시대 온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5대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6.58%
고정형·혼합형 1.26%p 오른 7.49%
기준금리 추가 인상때 8% 넘길수도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6개월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연 4.13~6.58%로 집계됐다. 전날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보다 0.15%포인트(p) 오른 영향이다.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코픽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8개 은행이 예·적금과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한 비용을 반영한 지표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 코픽스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도 뒤따라 오르는 구조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날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로, 지난해 말의 연 3.93~6.23%보다 하단은 0.84%p, 상단은 1.26%p 높아졌다.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물가와 환율 흐름에 따라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는 현재 금리와 코픽스가 더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은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흐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다.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과 내년 상반기(2회)까지 세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서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때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욱 국회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조 8000억원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 3000원에서 613만 9000원으로 29만 6000원 늘어난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이자 부담액은 더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임종룡 “하반기, 도약의 발판 확보해야”

우리금융,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

우리금융그룹이 ‘고객 기반 확대’와 ‘생산·포용적금융 확대’를 하반기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증권·보험 계열사 편입 이후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한 만큼 다양한 고객 기반을 확보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성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은 지난 16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은행·증권·보험 등 16개 계열사 대표 및 지주사 경영진이 참여하는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고객 기반 확대’를 주제로 계열사별 논의를 진행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2분기는 우리금융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였다면, 하반기는 도약의 발판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다”라며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뛰는 환경에서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금융

우리은행은 ‘타깃고객 확대전략’ 및 그룹 공동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보험계열사들은 ‘그룹 시너지·비금융 연계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카드는 ‘세대별 특화 마케팅 전략’을, 우리투자증권은 ‘시장 트렌드에 기반한 고객 확대 방안’ 등 종합금융그룹에 걸맞은 고객 기반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신규고객 확보 ▲기존고객 유지 ▲고객 복합화 등 고객 유치·확대 전략을 중장기 경영계획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위,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주년

금융당국이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40여 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그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했다. 고발 조치된 사례 가운데는 시세조종 혐의가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부담이익은 약 14억원, 혐의자 수는 25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평가하는 한

편,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이후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됐으며, 금융당국은 개별 조사를 거쳐 그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조치했다. 고발된 사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으로, 일부 가상자산 부정거래 사건도 포함됐다.

시세조종의 경우 ‘경주마’나 ‘가두리’ 등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이 주로 적발됐다. 또한 AP 1기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사건, 발행채단과 연계하고 대규모자금을 동원한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다.

부정거래 사건은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인한 사건이나 코인거래소 내 마켓 간 가격(테더·비트코인 등)을 악용한 사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 및 고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1인당 부담이익은 1인당 평균 14억원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담이익 5억~50억원 구간이 8건, 50억원 이상 구간이 1건 포함됐다. /안승진 기자

이번주, 전국 12개 단지서 8905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7월 넷째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017가구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기 오산시 양산동 ‘오산헤리티지자이(1·2단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리버뷰아이파크’,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중흥S-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에서 ‘춘천리버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춘천로, 순환대로 등을 통해 춘천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모텔하우스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베르’, 경기 양주시 회정동 ‘GTX회천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트’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를 재건축한 ‘월계중흥S-클래스리베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전업계, 성장 정체 넘는다… ‘친환경·AI’ 주거시장 공략

삼성 공간제작소와 모듈러 주택 선택 제작단계부터 다양한 AI 가전 결합

LG 모듈러주택 소재 다양화 나서
고효율 히트펌프 솔루션 공급 확대

가전 사업 성장 정체에 직면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거 시장에서 새 활로를 찾고 있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주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과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하는 히트펌프를 앞세워 합산 4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두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잇달아 예고하면서 관련 사업 확대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19일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5년 1096억달러에서 2030년 1429억달러(약 200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히트펌프 시장은 그랜드뷰리서치 기준 2030년 1480억달러(약 2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양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독일



삼성전자가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선보인 ‘삼성 AI 모듈러 홈’ 앞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가전전시회 ‘IFA’에서 모듈러주택 ‘LG 스마트코티지’를 처음 공개하며 시장에 먼저 뛰어든 LG전자는 최근 목재소재 모듈러주택 개발을 위한 협력사 물색에 나섰다.

그동안 철골 소재 제품에 집중해 왔으나 가격을 기존 제품의 60~70% 수준으로 낮춘 목재 라인업을 추가해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8일에는 20평대 신제품 2종을 출시해 8평부터 24평까지 총 8종의 라인업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모듈러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협력해 ‘AI 모듈러 홈’을

선보이며 맞대응에 나섰다. 에어컨과 히트펌프 보일러 등 자사 인공지능(AI) 가전과 스마트싱스 연동 기기 20여종을 주택 제작 단계부터 결합해 집 전체를 하나의 스마트홈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양사 모두 모듈러주택에 자사 냉난방 설비와 AI 가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택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히트펌프 사업에서는 주거용을 넘어 산업용까지 영역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말 영국 콘월 지역 1500세대 규모 주거단지 재개발 프로젝트에 히트펌프 기반 공조 솔루션을 대량 공



LG전자가 지난달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마련된 ‘MONO Core 72’ 체험관. /LG전자

급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국내 바닷난방 특성을 반영한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출시했다.

LG전자도 지난 5월 기존 주택의 운수 배관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를 국내에 출시했고 지난달에는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1000여세대 주거단지의 냉난방 솔루션을 수주했다. 지난 8일에는 출수온도를 108도까지 높은 산업용 히트펌프를 국내 제지공장에 공급했다.

실제 양사가 주력해 온 유럽 히트펌프 시장은 가스보일러 신규 설치 금지 등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보조금 지원에 힘

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히트펌프협회(EHP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21개국의 히트펌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90만대를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히트펌프가 2035년까지 선진국 건물 난방의 지배적 기술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정책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재정 지원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3월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난방도 히트펌프로 빨리 전환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임성택 부사장은 “고효율 히트펌프와 에너지 관리 솔루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다양한 냉난방 솔루션 포트폴리오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K-반도체 투톱, D램·HBM 등 제조장비 발주 확대

삼성 평택 5공장 조기가동 움직임
SK 용인 클러스터 Y1 구축 속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에 적용될 최첨단 D램 생산라인 구축을 앞당기며 장비 투자에도 본격 착수하는 모습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다바이스 솔루션 반도체(DS)부문은 최근 평택 5공장(P5) 페이스1에 투입할 반도체 제조장비 선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P5는 펌프공사와 함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가스 및 화학물질 공급 설비 구축이 진행되고 있

으며 장비사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구매주문(PO)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5는 클린룸 6개를 갖춘 3층 구조의 초대형 생산시설로 계획됐다. 기존 평택 사업장의 다른 생산시설보다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첨단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P5의 생산능력을 기존 평택 팹보다 5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BM을 포함한 최첨단 D램 생산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파운드리 생산라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는 페이스1에 이어 페이스2 장비사 선정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통상 반도체 생산시설은 라인을 단계별로 구축하지만 시장 수요에 맞춰 후속 라인의 장비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움직임으

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초 전체 P5 가동 시점은 2028년으로 알려졌으나 첫 번째 라인만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생산시설인 Y1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Y11 단계(Ph1)에 투입할 반도체 제조장비 발주를 시작했으며, 초기 생산 규모는 월 2만장 수준으로 알려졌다.

Y1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생산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2027년 5월로 계획했던 1단계 가동 시점을 같은 해 2월로 앞당겼다. 이에 맞춰 내년 2월 시생산 라인을 구축한 뒤 3~4월부터 장비 반입과 셋업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Y1에서는 6세대 10나노급(1c) D램이 생산된다. 1c D램은 현재 가장 앞선 세대

의 D램 공정으로 AI 서버용 DDR과 LPDDR은 물론 차세대 HBM4E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장비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사들과의 판매단이 계약도 예년보다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의 투자 속도가 빨라지는 배경에는 AI 메모리 시장의 급성장이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생산능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도 경쟁력 가운데 하나”라며 “최근 주요 업체들이 생산라인 구축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PV5 WAV와 함께 23년 만에 여행을 떠난 김은유 씨 가족.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더 무빙 룸’ 영상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가치를 담은 기아 목적기반차량(PBV) PV5 WAV 기술로 인해 바뀐 우리의 일상과 이동의 의미를 조명했다.

현대차그룹은 기아의 PBV PV5 WAV와 함께한 이야기 영상 ‘더 무빙 룸(The Moving Room)’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한 영상은 호흡 보조 장치와 함께 생활해온 김은유 씨가 기아 대표 사회 공헌 사업인 ‘초록여행’의 지원을 받아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기아 PV5는 의료·물류·레저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차량의 구조와 기능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첫 전용 PBV다.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PV5 WAV는 교통약자 특화 모델로, PBV가 지향하는 사용자 중심 공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상 제목 ‘더 무빙 룸’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일상과 의료 환경이 PV5 WAV를 통해 방처럼 익숙한 공간 그대로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PBV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 가치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키윗, 美 조선사업 힘 모은다

전략적 파트너십… 선박 공동건조 모색

HD현대가 미국 종합 설계·조달·시공(EPC) 기업 키윗과 선박 공동 건조 및 블록·모듈 현지 생산을 추진하며 미국 조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HD현대는 키윗과 ‘조선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양사는 미국 현지에서 선박 공동 건조 방안을 모색하고 선박용 블록과 모듈 생산에 협력한다. HD현대의 설계 역량과 기자재 공급망, 선박 건조 기술에 키윗의 현지 제작·건설 역량을 결합해 미국 내 사업을 공동 추진하



HD현대가 미국 종합 EPC 기업 ‘키윗(Kiewit)’과 ‘조선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왼쪽부터 키윗오피스어 체드 존슨(Chad Johnson) CEO, HD한국조선해양 최한내 기획부문장). /HD현대

고, 선박용 블록과 모듈의 현지 생산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LG전자, 재건축 단지 구독서비스 확대

현대건설 협력… 압구정 7000세대 대상

AI홈과 가전 구독을 결합한 주거 서비스가 건설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LG전자가 프리미엄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기업 간 거래(B2B)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현대건설과 손잡고 서울 압구정 재건축을 통해 들어설 신축 단지에 가전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2·3·5구역) 조합원 7000여 세대는 향후 입주할 신축 아파트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과 전문 케어 서비스가 결합된 맞춤형 구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구독을

선택한 입주민들은 최신 가전의 편리함과 전문가의 꼼꼼한 관리를 동시에 누리며 한층 쾌적한 일상을 경험하게 된다.

조합원에게는 구역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 5~7종의 가전 라인업이 선택지로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주거 시장을 중심으로 가전을 관리 서비스와 결합한 구독 모델이 새로운 주거 옵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는 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가전업체는 제품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과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어 이 같은 B2B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화학 플랜트 30년 한우물… 2030년 매출 1000억 목표”

혁신기업 돋보기 세종기술 고영현 대표

28년간 반응기·열교환기 기술 축적
설계서 인허가까지 턴키 EPC 수행
EPC 역량, 부가가치·성장 기반 강화
지속가능 기업위해 신사업 본격 시동
페PET 화학적 재활용 상업생산 추진
폭발위험 없앤 전고체 생산설비 개발

부산 강서구에 있는 화학 플랜트 전문 기업 세종기술.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 우물을 파왔던 세종기술이 2차전지 소재 생산설비, 페PET 재활용 플랜트, 원자력 기자재·산업설비 등 신사업을 통해 2030년 ‘매출 1000억원, 수출 5000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세종기술은 계열사를 포함해 지난해 27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며 2024년에는 수출이 2000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고영현 대표가 98년 당시 세종화공기계라는 이름으로 창업한 세종기술은 중소기업에선 드물게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인허가까지 플랜트의 모든 과정을 일괄



고영현 세종기술 대표가 부산 본사 공장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수행하는 턴키 EPC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EPC란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의 약자다.

“우리회사는 처음부터 EPC를 해왔다. 공사금액 1억원, 2억원 등 소규모 사업부터 차근차근 다져왔다. 단품으로 가서는 매출 규모와 부가가치가 적다고 판단했다. 나는 기계를 공부했지만 화학 플랜트를 하면서 발주회사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 화학도 어느 정도 안다. 모르는 것은 끊임없이 물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

왔다.” 부산 본사에서 만난 고영현 대표의 설명이다.

세종기술은 화학 플랜트의 핵심 설비인 반응기,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에서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차전지·친환경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지속 성장을 꾀하고 있다.

고 대표는 “오는 2030년부터 우리나라는 페PET의 30% 이상을 재활용해야한다. 이에 발맞춰 우리 고객사와 페PET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상업생산도 시작할 계

획”이라며 “우리 기술은 페PET를 잘게 부수는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색깔과 물성에 변화가 없고 무한정 재활용이 가능한 화학적 방식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최소화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차전지 전고체 소재(Li2S) 생산설비 분야도 개척해나가고 있다. 폭발 위험을 없앤 기술을 개발해 2024년 8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갔고 지난해 4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이미 전고체 소재 3차 증설(P3 공장)에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제품을 생산하고 향후엔 4차 증설에도 나설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커지고 있는 원전 건설·해체 시장도 미래 먹거리다.

고 대표는 “우리 회사는 지난해 원전기업(그린) 인증(9월), 한전KPS A등급 등록(10월), 한국수력원자력 A등급 등록(12월) 등을 통해 원자력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원전 장비해체는 국내 4개 기업 중 하나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e are building the future(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 4차 산업을 현실로 만드는 초격차 화학플랜트 기업.”

이 두 문장에는 세종기술과 고 대표의

비전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는 “평생을 쌓는다는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다는 1초면 충분하다. 우리 27년간 한 건의 품질사고 없이 고객과 신뢰를 지켜왔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자산”이라고 전했다.

세종기술에는 현재 28년 창업 당시 고 대표와 함께 시작한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른 회사에선 정년이 되면 퇴직하기 바쁘는데 세종기술에선 나이를 먹어도 누구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77세에 퇴직한 한 직원은 나갈 때까지 임금피크없이 월급을 고스란히 받았다.

“내가 시작한 회사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직원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나의 꿈이다. 2차전지, 친환경, 원전 사업에 새로 도전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동행 취재한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종기술의 글로벌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회원사들과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中企 50곳, 온라인 수출길 본격 확대

중진공, 고비즈 수출지원 2차 모집
이달 31일까지 참여기업 신청 접수
바이어 발굴·홍보물·무역 실무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 참여기업 2차를 모집한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모집하는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은 중진공이 1996년부터 운영해 온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바이어를 발굴하고 온라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기반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2차 모집에서는 ‘기반조성’ 분야에서 서류평가를 통해 약 50개사를 선정한다.

‘기반조성’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이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정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페이지 및 기업 홍보용 미니 사이트 구축 ▲제품 홍보영상 제작 ▲영문 거래 제의서 및 안내서(카탈로그)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무역 실무지원 등 온라인 수출 초기단계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독자적인 자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

질 수 있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수출지원’ 참여 희망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 정보 등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중진공에선 고비즈코리아에 누구나 직접 제품을 등록해 B2B 온라인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출계약 대응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퍼가 접수될 경우 제품 등록 기업은 해외 바이어 구매문의의 유효성 검증부터 계약서 검토까지 무역전문가의 1대1 실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말까지다.

/김승호 기자



(앞줄 왼쪽 8번째)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신입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새 인력 55명 전국 배치

소진공, 상반기 신입직원 임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55명을 선발하고 임용식을 가졌다. 19일 소진공에 따르면 임용 대상자는 행정사무일반 54명, 행정사무기록물관리 1명이다.

신입직원들은 지난 16일 임용식 이후 약 2주간의 합숙 집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공단 본부(대전) 및 전국 지역본부

와 센터에 배치되어 실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신입직원 채용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충원해 소상공인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롯데렌탈과 멤버십 영토 모빌리티로 확장

장기렌터카 계약 시 3.5% 캐시백
차량 정비·검사대행 할인 등 혜택

코웨이가 롯데렌탈과 손잡고 고객 추가 혜택 확대에 적극 나섰다.

19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코웨이 고객 전용 멤버십 서비스인 ‘코웨이 멤버십 클럽’의 제휴 혜택을 차량 이용·관리 영역까지 확대해 고객 생활에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추진했다.

이번 제휴로 코웨이 고객과 코웨이의 실버케어 전문 자회사인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고객에게 롯데렌탈의 신차 장기렌터카와 차량 관리 종합 플랫폼 ‘차방정’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차 장기렌터카 계약 시 3.5%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코웨이 문석환 사업관리실장, 롯데렌탈 조근행 마케팅부부장,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김명곤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있으며, 차방정의 멤버십 구독·병문장·자동차 검사대행 서비스도 할인된 가격으

로 이용 가능하다.

코웨이는 고객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21개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고 건강·여행·교육·문화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제휴 영역을 넓혔다.

코웨이와 롯데렌탈은 앞으로도 각사가 보유한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이어가며, 양사 고객을 위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코웨이 문석환 사업관리실장은 “고객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사와 협력을 확대해 코웨이 멤버십 클럽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대동, DJI 드론으로 미래농업 시장 공략

농업용 드론 3종 국내 공급

대동이 글로벌 드론 기업 DJI의 농업용 드론을 국내 시장에 본격 공급한다. 19일 대동에 따르면 국내에선 매년 약 4000~5000대 규모의 농업용 드론이 판매되고 있으며, 대동은 이번 시장 진출을 통해 연평균 1000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DJI 농업용 드론을 공식 판매하는 업체는 두 곳뿐이다. 대동은 전국 150여 개 대리점과 서비스망을 기반으로 구매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공

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동이 국내에 공급하는 DJI 농업용 드론은 ▲T25 ▲T50 ▲T70P 3종이다. 중소 및 소규모 필지에 적합한 콤팩트형부터 대형 농지용 모델까지 제품군을 구성해 농가 규모와 작업 환경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 각 제품은 병해충 방제, 비료 살포, 농지 측량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대동 이광국 국내사업부장은 “대동은 드론을 비롯한 AI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미래 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7월 27일 - 2027년 1월 26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기관 CCTV 보안 인증체계 2년… 현장 혼선은 ‘여전’

2028년 TTA 발급 인증효력 만료 이후부터 ‘보안기능 확인서’ 의무 장비 호환, 새 인증체계 대응 문제 제도 안착 위해 충분한 기간 필요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된 공공기관용 CCTV 보안 인증 체계가 시행 2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공공 영역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새로운 인증 체계를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기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발급하는 공공기관용 CCTV 보안 성능품질 인증(TTA 인증)의 효력은 오는 2028년 4월 만료된다.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취득한 제품만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시장에 공급하는 CCTV의 보안 기준과 검증 체계 마련은 국가정보원이 맡는다. 국정원은 2018년 보안 평가·발급



기존 공공기관용 CCTV 보안 인증 체계인 ‘TTA 인증’이 오는 2028년 4월 만료된다. /따능AI

업무 전부를 TTA에 위탁하면서 보안 인증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당시 전세계적으로 IP 카메라 해킹과 디도스 공격이 잇따르면서 보안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인증 제도는 2023년부터 의무 적용됐다.

점진적인 보안 규제 강화로 CCTV 제

조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졌다. 업계에서는 인증 신청 이후 발급까지 최장 1년이 걸리고, 제품 한 대당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등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두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정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

춰 공공 CCTV 인증 체계를 ‘보안기능 확인서’ 중심으로 개편했다. 심사 기관은 기존과 같은 TTA 공공안전서비스단이 담당하지만, 시험 기관은 한국정보보안기술원 등으로 확대됐고 평가 항목도 절반 이상 축소됐다. 다만 제도 안착까지 기존 TTA 인증과 보안기능 확인서를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도 현장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장비 간 호환성이다. 국정원이 규정한 보안 검증 대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촬영과 영상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IP 카메라다. 또 하나는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저장용 전용 하드웨어(NVR)·CCTV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VMS)다.

두 가지 장치를 결합해야 CCTV 작동이 가능한데, 현재 보안기능 확인서를 취득한 제품군은 IP 카메라뿐이다. 제조사가 새 인증 기준에 맞춘 IP 카메라로 교체하면 기존 저장 장치와 호환되지 않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인증 만료까지 남은 2년 안에 제조사들이 새 인증 체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정책 안내 자료에 따르면, 새 인증 체계 도입 이후 3개월간 시험 현장을 조차한 결과 단 한 곳의 업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보안기능 확인서 제도가 안착하려면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증 체계 전환이 기업의 제품 개발 방식과 투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인증의 유효 기간을 1년가량 연장해야 한다”며 “시험 기관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인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기업이 새 인증을 받기 위해 평가 항목에 맞는 제품을 구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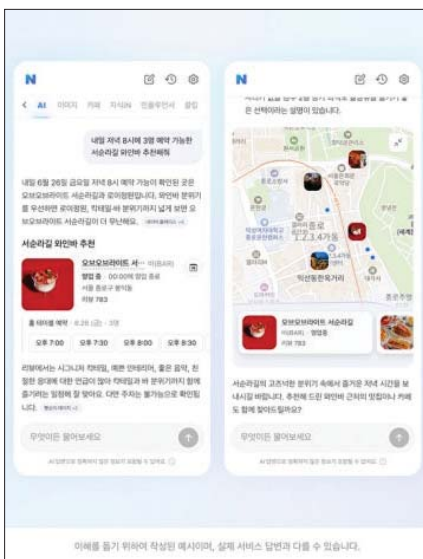
네이버, 부동산·건강 ‘전문 에이전트’ 도입… AI 검색경쟁 본격화

내달 부동산 에이전트 공개 이어 연내 건강 분야 에이전트 추가 예정 AI 전략 핵심 ‘탐색에서 실행’ 구체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탭’에 부동산과 건강 등 분야별 전문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AI가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추천과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하는 ‘AI 검색 2.0’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AI탭에 부동산과 건강 분야 특화 에이전트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식 출시 이후 약 3주 만에 이용자 1000만 명을 확보한 AI탭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체류 시간과 서비스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공개되는 것은 오는 8월 선



네이버 대화형 검색 ‘AI탭’ 서비스 화면 예시 /네이버

보일 부동산 에이전트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데이터와 이용자가 연동한 자산 정보,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를 종합 분석해 맞춤형 매물을 추천하고 실거주 후기와 주변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단순 매물 검색을 넘어 ‘예산에 맞는 신축 아파트를 추천해 달라’거나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알려달라’는 자연어 질문에도 AI가 조건을 분석해 적합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연내에는 건강분야에이전트도 추가된다. 공신력 있는 의료 정보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한편, 네이버 카페의 실제 이용 경험과 병원·영양제 검색 등을 연계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검색에서 실행까지…네이버 생태계가 무기**

업계에서는 이번 전문 에이전트 확대가 네이버 AI 전략의 핵심인 ‘탐색에서 실행(Explore to Execute)’을 구체화하는 단

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니 등이 범용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네이버는 쇼핑, 부동산, 플레이스, 카페 등 자체 서비스에 축적된 로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AI가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구매, 매물 확인, 장소 예약 등 실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범용 AI는 정보 생성 능력이 강점이라면 네이버는 국내 생활 데이터와 서비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실행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이나 건강처럼 신뢰성과 맥락이 중요한 분야에서 차별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자 증가세도 뚜렷**

AI탭은 이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 후속 질문까지 이어가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다. 네이버 첫 화면 검색창의 AI탭 버튼을 누르면 별도 창에서 AI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지난 4월 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최근 전체 이용자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정식 출시 이후 AI탭의 일평균 질의 수는 시범 서비스 대비 7배 증가했고, 이용자 1인당 평균 질의 수도 1.7배 늘었다. 한 번 질문하고 끝나는 방식보다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멀티턴 대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탭을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검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탐색에서 실행까지 연결되는 차별화된 에이전트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하나금융그룹, 청년 AI 인재양성

‘테크포곳’ 해커톤 성료 AI 동화 기반 훈육 솔루션 ‘대상’

SK텔레콤이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하나금융그룹과 ‘TECH4 GOOD(테크포곳)’ 해커톤을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총 115명의 청년이 참가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청년 대상 AI 교육프로그램 ‘플라이 AI 챌린저 9기’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등을 참가한 대학생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솔루션, 디지털 소외 계층 위한 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SK텔레콤 실무 개발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기술 질문에 답하

고 실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조인했다. 대상은 아이 맞춤형 AI 동화를 기반으로 훈육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인 ‘T1’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본인 목소리로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서비스를 ‘해물과전’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가 정보를 청각 및 촉각으로 재구성하는 서비스로 ‘십이간지’가 수상했다. 수상팀은 총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대상을 차지한 송실대 글로벌미디어학부 이동혁 학생은 “이들간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과 AI를 활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았다”며 “앞으로의 성장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하나금융그룹과 지난 2023년부터 미래 AI 인재 양성을 위한 해커톤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페이커, 호날두와 EWC 홍보대사 발탁

2028년까지 홍보대사 프로그램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이상혁)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함께 이스포츠 월드컵(EWC) 공식 홍보대사로 발탁됐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스포츠재단은 T1 소속 미드 라이너 페이커를 이스포츠 월드컵(EWC)과 이스포츠네이션스컵(ENC)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페이커는 호날두와 노르웨이 체스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 등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EWC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하며, 2028년까지 재단의 홍보대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페이커는 “T1과 함께 가장 큰 무대에서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전 세계 이스포츠의 성장에 함께해 온 선수들과 팬들을 대표하고 싶다”며 “EWC와 ENC를 통해 다음 세대에 탁월함과 회복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이상혁)’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함께 이스포츠 월드컵(EWC) 홍보대사로 발탁됐다. /이스포츠재단

탄력성, 경쟁 게임이 가진 가능성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랄프 라이히트 이스포츠 재단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커를 언급하지 않고는 이스포츠를 논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최정상을 지켜온 그는 전 세계 팬과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최빛나 기자

LG U+ 교보문고 전자책·매거진 콘텐츠 구독 상품 선택

구독 플랫폼 ‘유독’ 결합상품

LG유플러스는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교보문고 콘텐츠 결합 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교보문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 ‘sam’과 디지털 매거진 구독 서비스 ‘모아진’을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두 개의 상품을 각각 구독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을 줄였다. 구성은 80여만여 권의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 논문과 시사·경제·라이프스타일 등 2400여종의 국내외 디지털 매거진 등이다.

가격은 9900원이다. 이는 정가 2만4900원의 약 60% 수준이다. 오는 8월 말까지 가입하면 5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조민선 기자

고금리에 얼어붙은 회사채… 기업들 은행 대출로 몰린다

5대 시중은행 대기업 대출 190조
회사채 발행 10년 만에 최저 수준
신용등급 낮은 기업 자금난 우려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다. 뉴노멀이 된 고금리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에서 대출 받아 운전자금과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당분간 기업은 회사채 대신 은행 대출을 더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까지 올린 데 이어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전망도 부담이다.

◆회사채 대신 은행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90조 3641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반년 새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중기대출 잔액은 682조 7204억원으로 지난해 말 674조 4262억원 보다 8조원가량 증가했다.



ChatGPT로 생성한 '발행금리 상승으로 인해 위축된 회사채 시장' 관련 이미지.

기업들이 앞다퉈 은행 문을 노크하는 이유는 회사채 시장의 높은 조달 금리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회사채 발행액은 67조 3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조 9574억원에서 약 10% 감소한 규모다. 이 가운데 순발행은 1조 853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조 7323억원보다 90% 급감했다. 이는 2016년(2조 489억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금리 상승은 회사채 발행 환경을 더 얼어붙게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

면 지난 16일 신용등급 AA- 회사채(무보증, 3년물) 금리(최종호가수익률)는 연 4.544%로, 연초 보다 연 3.459% 보다 높았다. 신용등급 BBB- 회사채(무보증, 3년물) 금리도 연 10.345%에 달한다. 발행 시장에선 투자자들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채권을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 보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다. 시중 자금의 은행 유턴 움직임도 포착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예금·적금·요구불예금 등 소매예금 잔액의 총합을 알리는 총수신은 2252조 5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2163조 1712억원 대비 89조 408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6개월 만에 총수신 잔액이 4.1% 늘었다.

◆금리 오르면 더 부담

문제는 하반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하반기 전체 만기도래 규모는 총 26조 8519억원에 달하지만 글로벌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기울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2026년 하반기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0개 투자은행 중 JP모건, 비블레이스, 웰스파고, 노무라, TD뱅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7곳이 올해 중 연준이 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흐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예

고한 바 있다.

투자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금리를 좀 높여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도 빌릴 수 있지만, 등급이 낮은 기업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내놓은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 중 한계 기업 비율은 27.6%로 2017년 11.8% 대비 15.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한계 기업 비율은 9.5%포인트 오른 30.7%였다. 이어 프랑스는 5.5%포인트 오른 26.4%, 영국은 2.8%포인트 오른 22.4%, 독일은 2.3%포인트 오른 12.9%, 일본은 1.9%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한계 기업은 세전 이익(EBIT)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자 보상 배율 1 미만)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뜻한다. 한국 기업 4곳 중 1곳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내는 상태가 3년째 지속 중이라는 뜻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홈플러스 운명에 유통주 투자심리 '출렁'

경쟁사 이마트·롯데쇼핑 매출 개선
반사이익으로 주가 재평가 어려울듯

홈플러스의 향방이 국내 유통주 투자심리를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점포 축소에 따른 고객 이동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기존점 매출과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 사업과 계열사 부담까지 감안하면 반사이익만으로 주가가 재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이후 홈플러스 59개 점포가 문을 닫은 지역에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고, 전사 기존점 성장률도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봤다. 현재 영업 중인 67개 점포도 상품 구성이 크게 약화된 만큼 경쟁사로의 수요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기존점 매출이 2% 늘어나면 이마트는 연간 약 550억원, 롯데마트는 약 2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5년 연결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각각 18%,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가 쇼핑 카트로 막혀 있다. /뉴시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할 경우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합산 매출이 1조 4000억~1조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헌이익률 25%를 적용하면 영업이익 증가분은 약 3600억원이다. 점유율 확대와 함께 제조사와의 구매 협상력이 높아지는 점도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에서도 변화는 감지된다. 홈플러스

폐점 점포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일부 점포는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양사는 점포 리뉴얼과 자체브랜드(PB) 확대, 배송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유입 고객을 붙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미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연결 매출 6조 7671억원, 영업이익 177억원을 예상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74.2% 밑도는 수준이다. 할인점과 트레이더스의 성장에도 스타벅스와 온라인 사업 부진이 수익성을 눌렀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홈플러스의 퇴장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회생 가능성도 다시 나오는 분위기다.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지원하고 MBK파트너스가 전액 보증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다. 메리츠금융 3사의 이사회가 16일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코스닥 ETF 줄줄이 손실… 인버스만 수익

거래대금 급감에 상폐 공포 커져

코스닥시장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14.44% 하락하며 뒷걸음질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61.85% 오른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등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전개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이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5월 15조 6000억원에서 6월 10조원, 이달 들어 16일까지 6조 9000억원으로 줄어듦에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콤 ETF ETF CHECK에 따르면 이날 기준 'KODEX 코스닥150'의 1개월 수익률은 -23.54%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액티브 ETF인 ▲TIME 코스닥액티브(-22.99%) ▲KoSAct 코스닥액티브(-22.77%) ▲PLUS 코스닥150액티브(-23.00%) 등의 수익률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성과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같은 기간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가 각각 44.90%, 44.85%씩 떨어졌다. 이외에도 ▲RISE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45.03%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44.71% ▲KIWO

M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43.98% 등이 40%대 손실을 기록 중이다.

반면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70%) ▲KIWOOM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29%)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29%) ▲RISE 코스닥150선물인버스(-24.77%) 등은 같은 기간 수익률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에 베풀한 투자자들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로만 쏠리면서 반등 기미를 되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AI, 반도체 등으로 쏠린 만큼 코스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코스닥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서학개미 이자 동학개미인 국내 개인 투자자 특성상 국내 증시에서 개인의 순매수는 글로벌 AI 테마에 부합되는 업종으로만 지속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는 국내외를 넘나들 수 있어 국내로 들어온 개인 자금의 순환에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아닌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한화투자, 美 디지털에셋에 300억 투자

캔톤 네트워크 생태계 합류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에셋에 약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디지털에셋은 골드만삭스, 미국예탁결제원(DTCC)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채택한 금융 특화 개방형 블록체인인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를 운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월 글로벌 금융

시장 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에셋'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투자를 통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했다.

앞으로 한화투자증권은 캔톤 네트워크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향후 디지털 자산 및 차세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캔톤 네트워크는 금융기관 특화 개방형(Permissionless) 블록체

인 네트워크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한계였던 자산 간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자산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문은 "디지털에셋의 '캔톤 네트워크' 인프라와 독보적인 기술력은 한화투자증권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 고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신한 'MyPB 멤버스' 가입자 2만명 돌파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

신한투자증권은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 프리미어 MyPB 멤버스' 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 Premier MyPB 멤버스'는 '투자'는 공부다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금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

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고객은 투자 기초 학습부터 시장분석, 실전 투자 인사이트까지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PB와의 일대일 투자상담(My 핫라인), 전문가 초청 온라인 세미나(My 세미나), 신한 SOL증권 내 My 스킵 콘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불법행위 등 신고보상금 상한 폐지 공직사회 입찰 비리 실태조사 추진

국민권익위 하반기 역점 과제

삶의 질 개선 등 4대 과제 집중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신설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 만들 것”

앞으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국민이 받는 보상금의 30억 원 상한선이 전격 폐지된다. 또한 하반기 중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입찰비리와 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이뤄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과격적인 보상 대책이다. 권익위는 오는 9월부터 부패행위와 498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상금 상한액 30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권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억 원 기준도 아예 폐지해 신고에 따른 보상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의 반칙과 특권에 대응하기 위한 사정 고베도 죄어맨다. 권익위는 하반기에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8월에, 부정청탁 공직자 제재 강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에 각각 국회에 제출한다.

장기화된 민생 고충과 집단 갈등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 권익위는 이달 발표한 '집단 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반기 중 집단민원 130건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원행정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확대해 하반기 중 74회를 운영하며, 행정심판 청구 전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성 확보 조치도 이어진다.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하반기 중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50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과감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년간 청년세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해 병역, 취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정책 수요와 민원제기 유형을 7월 중 파악한다.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도 7월에 신설해 정책 제안의 정책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더 민생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송상근(가운데)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해운·항만 부문 창업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BPA

BPA, 해운·항만 부문 창업기업 지원 강화

‘1876 부산’ 입주기업 대상 간담회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운·항만 부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인 '1876 부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앞두고 지난 15일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876 부산'은 해운·항만·물류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다.

간담회에는 부산항만공사의 송상근 사장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안병길 사장이 참석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입주기업들은 개발

기술 실증 및 시제품 보관 공간 확보 등의 현실적인 지원 문제와 부산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협조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BPA는 중소기업의 기술 등록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기술 실증을 상시 지원하는 시험무대를 소개했다. 또 부산지역 창업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부산지역산업진흥원과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각 기관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송상근 사장은 "창업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업 확대를 통해 '1876 부산'을 동남권을 대표하는 해양 창업의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AI 역량 높인다

2개월간 'NH AI 권역별 교육' 실시

농협중앙회가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NH AI(인공지능)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 교육은 농축협 임직원의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업무혁신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은 농축협 임직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총 24기수 규모로 운영되며,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는 권역별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지역본부별로 1~3기수를 편성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AI 활용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AI 활용 실무 문서 작성 ▲AI 기반 제안서 작성 ▲데이터 수집·분석 등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해 보고서 작성, 자료 분석 등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활용법을 익히게 된다.

교육 첫날인 지난 14일에는 충남세종지역본부와 경남지역본부에서 'AI 활용 실무문서 작성' 과정을 선보였다. 이후 전국 권역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농협은 "수도권 중심의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교육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디지털 역량 격차를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AI 실습 과정을 지속 확대해 농축협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준 완화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대상 추가 고용·면적유지 의무 합리화 추진

앞으로 업력이 1년 미만인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방 투자를 할 때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에 보유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과 면적을 무조건 유지해야 했던 과도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할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탓에 정착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됐으나,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고용·면적 유지 의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 사업

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산 장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채울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우대해 준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빠져있었던 중·장비 구입비용도 앞으로는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일인 7월 20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자연·허수 발전사업' 퇴출

가동 준비된 사업자에 전력망 배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한정된 전력망 접속 용량만 장기간 선점해 온 '자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퇴출 절차가 시작된다. 호남권 등 전력 계통이 심각하게 부족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파를 독점하던 유명 사업자들을 쫓아내고, 실제 가동이 준비된 진성 사업자에게 전력망을 돌려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해왔다. 이 때문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청 단계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는 사업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

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점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용규정 등 세부 개정 내용은 한전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9월까지 기존 관리망 밖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를 대상으로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성공사례' 시상

최우수상 장선미, 우수상 남궁은옥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이룬 '청년농업인 성공 사례'를 발굴·시상했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지은행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를 주제로 열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청년농 장선미 씨는 '맞춤형농지지원'으로 원료생산 기반을 마련해 토종 허브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아로마로아'를 창업했다. 장 씨는 농지 구입 자금을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지원'을 통해 6600㎡ 규모의 농지를 확보했다. 이에 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시제품까지 출시하게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6일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지은행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됐다.

우수상을 받은 남궁은옥 씨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서 생산한 콩으로 '콩심체이크'를 개발했다. 농협하나로마트와 이마트 팝업스토어 등에 입점했고 중화권 수출도 추진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부산, 전국 첫 ‘AI 감사행정’ 구축… 위험요인 미리 찾는다

지자체 감사위 첫 AI 지원사업 선정
국비 3.7억 확보 폐쇄망 체계 구축
감사자료 분석해 점검 대상 탐지
유사사례·보고서 초안 등 추천
반복업무 줄여 예방감사로 전환

부산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행정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부산라이즈혁신원에서 ‘AI 기반 스마트 감사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시스템 구축 방향,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며 디지털 기반 감사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부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AI를 감사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감사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시스템 구성과 운영 방안,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부산시청 전경.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산시는 보안이 강화된 폐쇄망 환경에서 감사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감사 품질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가운데 처음으로 선정돼 국비 3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은

방대한 감사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감사 대상 가운데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찾아내는 기능을 갖춘다. 과거 유사 감사 사례를 자동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과 처분 기준 추천 기능도 지원해 감사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외부망과 분리된 폐쇄형 AI 모델을 활용해 감사자료에 포함된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분석 속도를

높인다. 반복적인 자료 검토 업무를 줄여 감사관이 현장 확인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AI 기반 감사 시스템이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적된 감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이번 사업은 감사행정에 AI를 접목해 감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전국 첫 시도”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의령군

‘뽕뽕버스’ AI 교통모델로 진화

의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특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실증사업에 부림면을 대상으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3월 경남 최초로 도입한 버스완전공영제 ‘뽕뽕버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농촌형 교통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군은 심사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연계한 교통모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왕진버스 등 생활서비스를 접목한 사업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뽕뽕버스는 ‘요금은 0원, 행복은 뽕뽕’이라는 뜻을 담은 무료 공영 농어촌버스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교육청

학생 쇼츠 영상 공모전 개최

부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 부산교육의 매력을 알리는 ‘2026 부산학생 쇼츠(Shorts)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 주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부산교육 홍보 영상 ▲학교 생활 관련 공익광고 ▲우리가 꿈꾸는 학교 가운데 하나를 골라 춤, 노래, 연기, 애니메이션 등 자유로운 형식의 1분 이내 세로형 쇼츠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학교 소개와 부산교육 이미지 홍보 2개 주제로 운영했다. 부산 지역 학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경북 이주배경학생 2만명 육박

학생 줄어도 이주배경 비중 확대
대구 5년 27.4% 경북 9년 두 배
경북 학생 20명 중 1명꼴 이주배경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대구·경북에서 이주배경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며 교육 현장의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은 전체 학생 2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으로 집계됐고 대구역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다문화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대구의 이주배경학생은 6553명으로 전체 학생의 2.8%를 차지했다. 경북은 1만3196명으로 전체 학생의 5.5%를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을 합한 이주배경학생은 1만9749명에 달했다.

학생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대구

는 올해 학생 수가 23만4315명으로 지난해보다 3283명 줄었고 경북도 23만8278명으로 4688명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며 학교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의 이주배경학생은 2021년 5145명에서 올해 6553명으로 1408명 늘어 27.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이 3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1598명, 고등학생 1040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증가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주배경학생은 2016년 6586명에서 올해 1만3196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올해 기준 국내 출생 학생이 1만9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가정 학생 1754명과 중도입국 학생 455명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진주, 천연물소재 허브 구축 본격화

중투심 통과 총사업비 463억 투입

진주시는 미래 전략사업인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8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463억원이 투입된다. 진주시 문산읍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에 연면적 5867㎡ 규모의 지하 1층·지상 3층 허브를 조성한다. 시설에는 ▲제조공정 표준화실 ▲분석·검증지원실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운영실 등이 들어서며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아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허브를 2027년 준공 예정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그린바이오



천연물허브 배치도.

/진주시

산업 육성 지구, 제2 바이오 특화 농공단지와 연계해 창업부터 연구개발, 표준화, 생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성장 지원과 우수기업 유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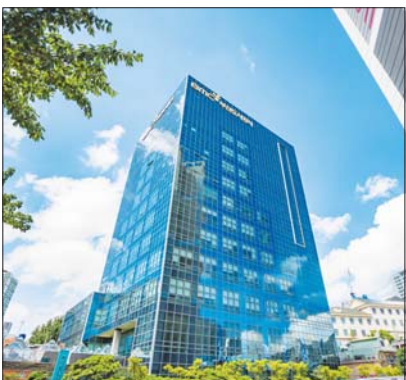
남부민폴리페 순환임대 60세대 모집

부산도시공사, 정비이주민 주거 지원

부산도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을 위해 ‘남부민폴리페 순환임대주택’ 입주자를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순환임대주택은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주민이 공사 기간 임시로 거주할 공공주택이다.

모집 대상은 부산 서구 해운대로 23에 위치한 남부민폴리페 아파트로, 36㎡형 27세대와 51㎡형 33세대 등 총 60세대다. 남부민폴리페는 총 782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로, 부산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지난해에도 하반기 모집에서 자격 완화를 시도한 바 있으며 올해 더 많은 정비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다.



부산도시공사.

신청 대상은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입자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이며 자격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순환임대주택은 정비사업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덕, 스포츠클라이밍 생활체육으로 안착

전문강사 지도 단계별 교육 진행

영덕군(군수 조주홍)이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이 새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4월 첫 수업을 시작한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익스트림 스포츠를 생활체육으로 접목해 군민들에게 색다른 운동 경험과 건강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기초 이론과 장비 사용법, 안전 수칙, 기본 동작부터 실전 등반 기술까지 참가자의 수준에 맞춘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돼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복합 운동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까지 자극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유연성과 심폐지구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생활 스포츠로 평가받고 있다. 목표 지점을 향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오르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영덕군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군민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운영 기간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재)경산문화관광재단

가족 사랑 담은 뮤지컬 ‘구름뽕’

어린이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가족 뮤지컬 ‘구름뽕’이 오는 25일 경산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공연을 마련한다. 작품은 누적 판매 40만 부를 넘긴 동명 동화를 원작으로 가족 간 사랑과 배려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공연 중에는 관객이 배우와 함께 뽕 반죽 동작을 따라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배우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산=김준한 기자 kih9@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3만명 수료 돌파

경북교육청은 사이버독도학교가 개교 5주년을 맞아 누적 분량 300만 명과 수료자 3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이버독도학교는 학생과 일반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독도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회원은 402명이며 이 가운데 142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베트남과 미국 등 해외 이용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메타버스와 AR 콘텐츠, 교수학습자료 ‘월간 독도’ 등을 활용해 독도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도 지식 쌓기’와 ‘함께 독도 수업하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美 두부시장 1위·中 냉동김밥 흥행… 해외사업 흑자 확대

풀무원, 1분기 영업이익 69% ↑
미국법인 3분기 연속 흑자 기조
나소야 앞세워 두부시장 1위 수성
중국 냉동김밥 누적 매출 100억
현지생산·B2B 확대로 수익 개선

풀무원이 미국과 중국 등 핵심 해외 법인의 성과 확대를 바탕으로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원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년간 지속된 고정부 부담과 물류비 리스크를 털어내고, 수익성 중심의 현지화 제품 및 B2B 채널 확장을 통해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풀무원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한 8503억 원, 영업이익은 68.87% 급증한 190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내수 경기 둔화 속에서도 이 같은 실적 개선을 이룬 배경에는 미국·중국 법인의 수익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풀무원USA 폴라톤 공장에서 포장 두부가 생산되고 있다. /풀무원

성 개선과 일본 법인의 적자 폭 축소가 자리 잡고 있다.

◆美 ‘나소야’ 시너지… 11년 연속 1위
풀무원 글로벌 틴어라운드의 핵심 엔진은 단연 미국법인이다. 미국법인의 올해 1분기 매출은 두부 신규 매출처 확보와 면

류 부분의 B2B 신규 공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8.0% 성장한 1362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8.8%까지 저하되었던 영업이익률은 공급망 안정화 및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지난해 -1.7% 수준까지 대폭 개선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3개 분기 연속 분기별 영업흑자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2016년 미국 주류 소매시장 1위 두부 브랜드인 ‘나소야(Nasoya)’를 인수한 이후 전개해 온 현지화 전략이 안착한 결과다.

현재 월마트 등 미국 전역 1만 5000여개 메인스트림 매장을 장악한 풀무원은 11년 연속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1위(약 67%)를 수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두부 매출은 224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말 유럽 법인을 설립하고 신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中, 냉동김밥 대박+생산 이원화
중국법인(푸메이푸어식품) 역시 고부가가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하며 면

조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법인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2% 증가한 327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43.7% 성장했다. 대형 유통채널 샘스클럽 입점 이후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냉동김밥은 지난해 말부터 현지 생산 체계로 전격 전환, 소비자 가격을 약 35% 낮추며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도 빛을 발하고 있다. 풀무원은 베이징 1공장(냉장면·파스타)과 2공장(두부 중심 식물성 제품)을 이원화하여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1.0%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부진했던 일본법인의 경우 생산 거점 통합 등 강도 높은 비용 구조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히트 상품인 ‘두부바’의 내실 경영과 신규 K-푸드 라인업 투입으로 하반기 실적 반등을 노린다.

◆구조적 성장 진입… 시장 지배력 강화

풀무원은 미국법인의 두부 PB 및 B2B면 제품 수주 온기 반영, 일본법인의 효율화 효과, 중국법인의 흑자 기조가 맞물려 하반기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풀무원의 올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은 3조 5500억 원, 영업이익은 1142억 원에 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풀무원 관계자는 “해외 핵심 축인 미국 법인이 주력 품목의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확보한 대형 신규 공급처의 효과가 올해 온기로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별 핵심 주력 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K-푸드 라인업 확장을 통해 해외사업 전체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복귀 100일 기념행사

에스파 참석 리본 커팅·핸드프린팅
8월 17일까지 카테고리별 혜택 제공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 오픈 100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 롯데면세점 모델인 인기 아이돌 그룹 에스파(aespa)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인천공항점 오픈 100일을 축하하는 리본 커팅식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매장 투어, 에스파 핸드프린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됐다.

롯데면세점은 오픈 100일을 기념해 다



지난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100일 기념 행사의 모습. /롯데면세점

채로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8월 17일까지 LDF PAY와 함께 화장품·주류·식품 카테고리에 사용할 수 있는 PRE LDF PAY를 주차별로 증정한다. 또한, ‘LUCKY SEAT’ 이벤트를 통해 비행기 좌석 번호와 롯데면세점 행운의 좌석 번호가 일치하는 고객에게 인천공항점 전용 LDF P

AY 5만 원을 제공하며, 미당점 고객에게는 트래블 파우치 2종을 증정한다.

롯데면세점은 올해 4월 인천공항점 DF1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식품)매장 영업을 시작하며 약 3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복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CJ제일제당, 옹기 숙성 K-증류주 뉴욕 진출

전통주 명가와 ‘자리’ 론칭

CJ제일제당이 K-푸드에 이어 K-증류주를 앞세워 글로벌 주류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통주 명가와 협업해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를 선보이고, 올 가을 미국 시장에 진출해 한국 식문화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서울 성북구 한국가쿠박물관에서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jari(자리)’ 론칭 행사를 열고 브랜드 비전과 신제품 2종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이 선호 CJ그룹 미래기획그룹장을 비롯해 F&B 문화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브랜드 소개와 제품 시음, K-푸드 페어링 다이닝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이번 공개된 제품은 ‘자리 문배술 24’와 ‘자리 가무치 24’다. CJ제일제당은 문배주양조원, 다농바이오와 협업해 지난해 1월 충남 논산에 구축한 전용 숙성시설에서 원액을 숙성해 프리미엄 증류주로 완성했다.

‘자리 문배술 24’는 국가무형유산인 문

배술을 옹기에서 사계절 숙성해 달콤한 배향과 부드러운 목넘김, 긴 여운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자리 가무치 24’는 전통 쌀 소주인 가무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옹기 숙성을 거쳤으며, 쌀의 은은한 단맛과 열대과일 향, 깔끔한 피니시를 구현했다. 두 제품 모두 알코올 도수는 24도로, 한국 전통주를 처음 접하는 해외 소비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브랜드 앰버서더인 파인애플 코(Pine&Co)의 홍두의 바텐더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소울’의 김희은 셰프가 협업해 ‘jari’를 활용한 카테일과 한식 코스 요리를 선보이며 K-증류주와 K-푸드의 조화를 제안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국내 프리미엄 레스토랑과 파인다이닝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전개한 뒤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올 가을에는 뉴욕을 비롯한 미국 시장에 진출해 K-푸드와 연계한 프리미엄 미식 경험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핑구 크리머리 현장.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핑구 여름팝업 운영

나만의 폰케이스 3분 완성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28일까지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서 글로벌 캐릭터 ‘핑구’와 손잡고 여름 시즌 팝업을 선보인다. 이번 팝업은 빈티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냉장고 형태의 상품 진열대와 핑구로 꾸민 벽면 포토존을 마련해 고객들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듯 굿즈를 둘러보고 곳곳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체험 콘텐츠도 준비했다. 폰케이스 제작 부스에서 원하는 핑구 이미지와 배경을 선택하면 약 3분 만에 나만의 폰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톰과 제리, 한옥서 펼치는 조선시대 대소동

롯데백, 월드몰서 26일까지 팝업
한복 봉제인형 등 굿즈 220여종 선보

글로벌 인기 캐릭터 톰과 제리가 롯데백화점을 찾았다.

롯데백화점은 26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톰과 제리 한옥 대소동’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조선시대로 타임슬랩한 톰과 제리의 추억전을 연출한 체험형 팝업이다. 기와 지붕, 대청마루, 부엌, 장독대 등 한옥의 공간 요소를 다채롭게 살렸다.

소장 가치를 높인 단독 상품도 선보인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신규 개발 상품과 한정판 굿즈를 중심으로 총 220여종의 다채로운 상품을 준비했다. 특히 대표 상품인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K-톰과 제리 봉제인형’은 킴형 형태부터 중형 세트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준비했다.

팝업스토어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했다. 한복을 입은 톰과 제리 코리아 에디션 인형과 톰과 제리 떡 모양 랜덤 킴, 원하는 킴과 바디를 직접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 광장에서 진행 중인 ‘톰과 제리 한옥대소동’ 팝업스토어를 구경 중인 모델. /롯데쇼핑

선택해 조합하는 ‘나만의 킴 킴 만들기(DIY)’ 체험존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토존과 연계한 참여형 미션 프로그램인 ‘제리의 치즈 스탬프 랠리’도 운영한다. 3가지 미션을 단계별로 체험하고 스탬프를 얻으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된 ‘톰과 제리 반다나(스카프)’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현대백, 외국인 여성에 고객경험 묻는다

4개국 여성 5명 첫 CX 자문단 구성

현대백화점이 차별화된 글로벌 고객쇼핑 경험(CX)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고객들로 구성된 자문단 ‘글로벌 CX 어드바이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백화점이 외국인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중국(1명), 대만(1명), 일본(2명), 세네갈(1명) 등 총 4개국 5명의 외국인 자문단을 선발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대학에 다니거나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체류 외국인들로, 평균 연령은 29세이며 성별은 모두 여성이다. 현대백화점을 찾는 핵심 외국인 고객층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30세대 여성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현대백화점 외국인 구매 고객 중 2030세대의 비중은 70%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1%가 여성이었다.

이들 글로벌 CX 어드바이저 1기 멤버는 오는 9월초까지 두 달여간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더현대서울, 현대이몰렛 동대문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주요 점포에서 쇼핑 과정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이어 다양한 각도에서 외국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추석명절 이후 2기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큐라클·인제니아, ‘혈관 신약’으로 글로벌 자금 끌어모은다

큐라클, 메멘티 메디슨과 ‘맞손’
‘MT-103’ 개발·상업화에 1.5조

인제니아, 오는 8월 상장 앞뒤
‘IGT-303’ 등에 필요 자원 마련
이중기능 플랫폼 ‘엘시덱’ 구축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 기업 큐라클이 최근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들을 기술수출하면서 국내 바이오텍의 플랫폼 경쟁력을 높인 가운데, 후발 주자인 인제니아테라퓨틱스가 기업공개에 도전하며 경쟁에 합류한다.

1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큐라클은 대규모 성과를 올렸다. 미국 바이오텍 메멘토 메디슨과 ‘MT-103’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계약을 최대 1조5636억원 수준으로 체결하면서다.

MT-103은 Tie2 활성화 항체와 VEGF 항체를 결합한 이중 항체다. 혈관 안정화 수용체인 Tie2를 활성화해 혈관을 강화하는 한편,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억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연구원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모습.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제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생성을 막는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습성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글로벌 자본이 이러한 차별화 기전에 지갑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역시 글로벌 빅파마를 통해 기술

력을 입증한 파이프라인을 무기로 코스타 시장에 입성한다는 전략이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오는 8월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 공모 주식수는 총 500만 주다. 공모 희망가 범위는 1만2000원~1만4500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00억원 수준이다.

해당 재원으로 오는 2028년까지 3개년 연구개발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장 질환 치료제 ‘IGT-303’의 국내 임상2a상 개시, 삼중항체 항암제 ‘IGT-532’의 독성시험 및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비용에 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독보적인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 쌓아왔다. 지난 2022년에는 글로벌 바이오텍 아이바이오에 IGT-427을 기술이전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7월 미국 빅파마 머크가 아이바이오를 완전 인수합병하면서 IGT-427은 머크의 안과 부문 핵심 자산이 됐다.

IGT-427은 망막 질환을 위한 이중 항체다. 지난해 10월 임상 1/2a상에서 우수한 시력 개선 및 안전성 데이터를 기록해 올해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플랫폼 확장성으로 기업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 안과 질환은 물론, 만성 신장 질환 등을 폭넓게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인제니아는

혈관내피세포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혈액 내 질병 단백질을 빠르게 제거해 세포 내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중 기능 플랫폼 ‘LCIDEC(엘씨덱)’을 구축했다.

인제니아 측은 “각 파이프라인 개발에 선제적으로 집중하겠다”며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도 초기 단계에서 효력 검증(PoC) 및 적응증 확대 연구를 통해 기술 수출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병리적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기전(Mechanism of Action)이 중요하다”며 “세포 및 분자 단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전을 규명할 수 있는 플랫폼은 체내 미세환경을 개선하는 등 무궁무진하게 확장 가능한 바이오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GC녹십자, ‘알리글로’ 중심 5300억 투자

2033년까지 오창공장에 투입
알리글로 美 시장 안착 공략
‘GC5136B’ 상업화에 1400억

GC녹십자가 미국에 진출해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국산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중심으로 중장기 사업 전략에 시동을 건다. 대형 투자를 단행해 차세대 성장동력인 알리글로 ‘피하주사(SC)’ 제형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하고 수익성 개선까지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알리글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창공장에 총 5300억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이 중 약 26%에 달하는 1400억원을 알리글로 후속 파이프라인 ‘GC5136B’ 상업화에 대응한 설비 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앞서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나타난 알리글로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리글로

/GC녹십자

알리글로는 2024년 7월부터 미국에서 발매되고 있는 정맥투여(IV) 제형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 등에 쓰인다.

출시 1년 만인 2025년 7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기록했고 2025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한 1511억원을 올렸다. 올해 들어 이러한 호실적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1분기 알리글로 매출은 349억원으로 전년 동기 86억원에서 4배 커졌다. GC녹십자는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40% 커진 약 2100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오는 2028년 연간 매출 3억 달

러 돌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알리글로의 미국 시장 안착과 함께 고부가가치 약물 ‘GC5136B’를 통해 해당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GC5136B’는 정맥투여(IV) 제형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를 피하주사(SC) 제형 면역글로불린 20% 제제로 개선한 물질이다. 환자가 스스로 투여 가능해 복용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다.

또 현재 미국 시장에 출시된 피하주사형 고농도 제제는 단 3종에 불과해 희소성까지 갖췄다는 분석이다.

‘GC5136B’는 비임상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3상시험계획서(IND)를 신청할 계획이다.

GC녹십자는 독자 생산 기술과 최적화 공정을 개발한 것은 물론, 오창공장 내 전용 설비를 통해 생산성 제고, 원가 절감 등까지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해당 파이프라인 상용화 단계 진입 시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초등학생 구강관리 교육 강화

‘가그린 좋은 이’ 캠페인 규모 2배 확대

동아제약이 어린이 구강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구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아동기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동아제약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지역 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가그린 좋은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 25곳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7곳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한다.

올해는 캠페인 규모가 2배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역아동센터 26곳에서 어린이 341명이 함께했고 올해는 어린이 68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확대됐다. 교육 전·후 치아세균막 검사를 새롭게 도입해 양치 습관 형성에 따른 치아 표면에 남아 있는 세균막(플라그)의 변화를 확인한다. 또 대한구강보건협회 전문가가 충치 발생



동아제약이 국내 초등학생들과 ‘가그린 좋은 이’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제약

원인, 예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칫솔 보관법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교육이 이뤄진다.

동아제약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따라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과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구강 교육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계속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혈액종양내과’ 연구성과 공유

통합 학술행사 ‘판타지 심포지엄’

JW중외제약이 제품별 치료 전략으로 다양한 진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1~1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센터에서 통합 학술행사 ‘판타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JW중외제약의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 면역질환 치료제 ‘악탐라’,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등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다뤘다.

우선 타발리스에 대해서는 국립암센터 정종현 교수가 강연했다. 정 교수는 자가 항체에 의한 혈소판 파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타발리스 작용 기전과 글로벌

및 일본 임상3상 내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타발리스는 혈전 형성 위험도를 높이지 않아 자가 면역 질환을 앓거나 혈전 고위험군인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병원 권지현 교수는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국적 처방 환경에서 일관되게 입증된 타발리스 유효성과 안전성을 공유했다.

또 국내 진료 환경에서는 ‘장기 무치료’에 처방으로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 다 약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가 타발리스 단독 투여 후 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혈소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례다.

이와 함께 악탐라와 페린젝트를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경희의료원 이현정 교수는 CAR-T 및 이중항체 치료 시 발생하는 면역항암제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RS)’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악탐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인터루킨-6(IL-6) 신호 경로를 차단하는 악탐라를 통해 항암제의 항종양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CRS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최대호 교수는 암 환자의 기능성 철결핍을 개선하기 위한 정맥 철분 치료 옵션으로 페린젝트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국내 임상3상에서 페린젝트 1000mg 단회 투여만으로도 빈혈 교정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진과 학술적으로 지속 소통하며 실질적인 의학학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 재단장

‘V라인’ 상징 역동적으로 그려내

광동제약이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 (사진)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국내 대표 차음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

광동제약은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를 재단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V라인’을 역동적으로 그려 넣었으며 ‘가벼운 하루를 만드는 V-루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옥수수 이미지도 보다 산뜻하게 적용해 원료 특징을 살렸다. 일상 속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로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는 옥수수수염 특유의 구수한 맛을 갖췄고 천연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2006년 출시부터 2025년까지



누적판매량 16억 1258만병을 기록했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이번 재단장으로 페트(PET) 제품에

도 변화를 적용했다. 제품 하단에서 옥수수수염 등 차 원재료의 형태와 질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고 3D 입체 디자인을 설계해 안정감까지 더했다.

친환경 접착식 라벨, 하프라벨 등으로 환경 부담도 낮췄다. 또 500mL 기준 용기 중량을 기존 대비 약 6.8% 줄여 플라스틱 사용도 줄였다. 해당 용기는 옥수수수염차를 비롯해 핫차, 밀식보리차, 돼지감자차 등 차음료 제품군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창업상담 | 1644-0622

으뜸스시
Sushi Saikō

고객이 먼저
찾는 스시,
창업자가
다시 보는 브랜드

7/22 (수) 37호점,
으뜸스시 부산명지점 오픈!



2,200원
균일가

가성비 & 가심비
모두 만족



100가지
이상 메뉴

남녀노소, 가족 모두
만족하는 메뉴 구성



당일 작업 및
당일 판매

참치·활어 중심의
신선한 메뉴



서울 및 전국
창업

자동화 시스템으로
초보 창업자도 가능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지역 기업 성장 지원”

BNK경남은행은 지난16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주재로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는 BNK경남은행 경영진 및 본부 부서장, 영업점장 등 350여명이 참여해 ‘지역경제의 도약’을 주제로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정영두 김해시 시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제네시스, 하남시 ‘마그마 X GMR’ 특별전 개최

제네시스는 내달 17일까지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에서 ‘제네시스 마그마 X GMR(Genesis Magma Racing)’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존’과 ‘제네시스 마그마 존’으로 구성해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네시스 마그마 X GMR’ 특별전에 전시된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모델. /제네시스



키움증권, ‘키움드림 5기’ 수료식 성료

키움증권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 키움증권 본사에서 키움드림 5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키움드림 5기 베스트 멘토로 선정된 (왼쪽부터)김성아 멘토(23), 정수환 멘토(24), 한유정 멘토(22), 최현준 멘토(24)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이노비즈협회, 차세대 경영자 4기 배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이노비즈기업의 차세대 리더들이 11주간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가 진행한 ‘제4기 이노비즈 차세대 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정광천 협회장(앞줄 왼쪽 5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한솔제지 중소 출판·인쇄업계에 종이 지원

한솔제지가 내수 경기 둔화와 제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출판·인쇄업계를 위해 ‘출판·인쇄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9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인·독립출판사를 포함한 중소 출판·인쇄업체 200곳을 선정, 업체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종이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중동 분쟁 장기화로 촉발한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출판·인쇄업계 전반에 운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bada@

“50도 폭염도 거뜰”... 삼성전자, 중동 HVAC 시장 공략

〈냉난방공조〉

모스크 100여곳에 1000여대 공급
이슬람 전통 문양 반영한 디자인

삼성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사원(모스크)에 맞춤형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대규모로 공급하며 중동 B2B 공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라마 등 8개 주요 도시의 모스크 100여곳에 고효율 HVAC 솔루션 1000여대를 공급한다. 공급 제품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60 카세트’로 종교 시설의 공간 특성을 고려해 공간 전체에 균일한 냉방과 정숙한 운전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360 카세트는 기존 사각형(4Way) 디자인 대신 세계 최초로 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다. 풍향을 조절하는 블레이드로 인한 기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받은 ‘부스터 팬’ 기술을 탑재해 냉기를 수평 방향으로 넓고 멀리 보내 공간 전체에 균일한 전방위 냉방을 구현한다.

천장이 높고 개방형 구조인 모스크



사우디 모스크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60 카세트’가 설치된 모습. /삼성전자

에서도 냉기를 고르게 전달할 수 있으며 천장 설치 구조로 바닥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저소를 설계할 때 적용해 배에 공간에 적합한 정숙한 실내 환경도 제공한다.

실외기는 사우디의 고온 기후를 고려해 외기온도 50℃ 이상에서도 안정적인 냉방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다. 사우디는 여름철 낮 기온이 50℃에 육박해 연중 냉방 수요가 끊이지 않는 시장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현지화에 공을

들었다. 모스크는 내부 인테리어와 건축 양식의 조화가 중시되는 종교시설인 만큼 제품 패널에 이슬람 전통 문양을 반영한 전용 디자인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지난 6월 모스크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현지 파트너 ‘고루스 채리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사우디 내 모스크 대상 공급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공조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NH농협금융·아문디, AI운용 도입 논의 세계유산위원회서 한국 갯벌 알린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 아문디(Amundi) 본사에서 ‘NH농협금융-Amundi 파트너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올리비에 마리에 Amundi 부사장은 해외투자 협업 확대 등 양사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과 합작법인 NH-Amundi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를 논의했다.

특히 ▲Amundi의 자산운용·투자 전략·리서치 분야에 특화된 AI 운용 시스템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국내 연금시장 변화에 대비한 글로벌 선진 연금운용 모델의 선제적 구축 ▲수탁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양사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오른쪽)과 올리비에 마리에 아문디(Amundi) 부사장이 ‘NH농협금융-Amundi 파트너십위원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의 협력 확대는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구축해 가기 위한 전략적·보완적 과제”라며 “Amundi의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NH-Amundi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사의 글로벌 파트너십도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한전원자력연료,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참가비 무료, 홈페이지서 접수

평소 일반인이 접하기 힘들었던 원자력연료 제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장이 열린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민 참여형 견학 프로그램인 ‘KNF와 같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원자력연료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일방향적인 설명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가 원자력연료를 직접 보고, 만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참가자들은 매일 정

기적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료 제조 체험과 실제 제조 현장 방문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한전원자력연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상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세부 신청 방법 역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이 원자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부산서 29일까지 개최

해양수산부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과 ‘K-씨푸드’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위험유산의 관리방안, 세계유산기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내에서는 첫 개최로, 이날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196개국 대사·대표단을 비롯한 3000여 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갯벌 홍보관’을 운영해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갯벌 관련 정책을 홍보한다. 또 ‘K-씨푸드 홍보관’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1년 7월 서·남해안 갯벌 4곳(전남 신안,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보성·순천)이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로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유산명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갯벌 홍보관에서는 갯벌 보전을 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포스터 /부산광역시

한 해양보호구역 제도, 갯벌복원 사업, 갯벌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뽕배어업 등 갯벌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의 홍보 영상 상영, 갯벌 생물모형 전시 및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K-씨푸드 홍보관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김, 전복 등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시식과 함께, K-씨푸드 홍보영상 상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과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인사 ◆국가보훈부 △국제보훈협력관 이승진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장 박민식(파견)

◆병무청 △과장급 개방직 위임용 △감사담당관 김미옥 △과장급 전보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원동병무지청장 김지연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이부용 △운영지원과장 윤관상 △서울서부지청장 천경기 △서울관악지청장 조선열 △평택지청장 김민철

부음 ▲김명숙(향년 88세)씨 별세, 이준영(부산일보 전 논설위원)씨 모친상, 이숙경씨 시모상, 이태동·곽희범씨 장모상 = 18일 오후 4시25

분,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장지 울산하늘공원. 052-241-1445

▲박영연(향년 77세)씨 별세, 정수만씨 배우자상, 박정화·명화·미화씨 부친상, 유수희씨 시부상, 배완호(MBN 영상취재부 기자)씨 병부상, 박성후씨 조부상, 김태양·김태강·배수현씨 외조부상 = 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성빈센트 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31-249-8444

▲조영희씨 별세, 강숙희(밀양시노인장애인과)씨 시모상 = 18일, 경남 밀양시 창밀로(내이동) 한솔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55-356-7213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바질에 토마토를

REALLY?

버거를 더 맛있게

NAPOLINI!



By chef 나폴리 맛피아

나폴리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튜버 무단 사용 음악, 플랫폼 배상 책임은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오늘날 콘텐츠 업계의 무대는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플랫폼의 이용자가 타인의 음악이나 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콘텐츠가 유통되도록 장(場)을 제공한 플랫폼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종종 문제된다. 침해행위를 직접 한 것은 이용자이지만, 정작 배상 능력이 있는 쪽은 플랫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플랫폼에 침해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플랫폼 업체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등). 예컨대,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 도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

는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것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해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켰을 것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은 자를 지정해 공지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이 이뤄지는 식이다.

대법원 역시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권리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삭제·차단 요구를 받았거나 그 게시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플랫폼의 방조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이러한 법리가 잘 드러난 최근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원고)가 해외 온라인 방송 플랫폼 운영사(피고)를 상대로, 플랫폼 이용자(스트리머)들이 음악저작물을 무단 사용했으니 약

8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절차적인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지만, 본안에 관해서도 플랫폼의 방조 책임을 부정했다. 피고가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운영하고, 자동 프로그램으로 VOD 속 무단 음악을 음소거하며,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정지·해지하는 등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왔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매일 방대한 양이 송출되는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일이 사전에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이는 오히려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라면 통지 및 삭제 절차 등 합리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책임 제한의 출발점임을, 권리자라면 막연한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침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핵심임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플랫폼을 둘러싼 관리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곱씹어 볼 만한 판결이다.

/법무법인 바른

사면초가에 빠진 2금융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2금융권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 압박이 커진 가운데 수익성 개선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던 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한은의 긴축 기조가 본격화된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항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질 전망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경우 기준금리가 밀어 올린 시장금리가 여신전문

금융채권(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저축은행도 다르지 않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금융권은 대출금리를 올려비용을 상쇄하려 한다. 금융권의 기본은 대출 장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마다 시장이 대출금리 상승분에 예민하게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포용 금융이라는 단어가 끼어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2금융의 경우 더 그렇다. 포용 금융 그늘 아래 취약차주를 주고 객으로 하는 2금융권이 저신용자 중심으로 금리를 높여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신용평가사 수석연구위원은 “카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성 상품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시 대출금리 인상으로 운용수익률 개선이 일정 수준 가능하나 금융당국의 포용 금융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 상승 수준에 비해 대출금리 인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썸뽕도 복잡해진다. 역시 들어오는 돈의 원가는 비싸졌는데 나가는 돈, 즉 대출이자지는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대미진 축소에 연체율 상승 우려까지 더해지면 대출 취급도 기존보다 더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취약차주에게 돌아간다. 비용 상승으로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의 신용대출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중저신용자의 자금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2금융의 업난 시그널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 어디서든 위기가 도래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가장 아래,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wotjs4187@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0일 (음 6월 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60년생**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2년생**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84년생** 귀하에게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49년생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입니다. **61년생** 대인관계를 주의하세요. **73년생**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85년생**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쯤은 헤아려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50년생 주위와 보조를 맞추며 업무에 임한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62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74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86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51년생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63년생** 화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습니다. **75년생**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87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52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증개인을 통하세요. **64년생** 옳은 일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6년생**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88년생** 남녀간의 일에는 신중하세요.



53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65년생**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77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89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54년생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66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78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됩니다. **9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55년생 좋을 때도 있는것처럼 나쁠때도 있는 법입니다. **67년생** 할 일이 아직도 태산입니다. **79년생**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91년생**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56년생 귀하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세요. **68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80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92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세요.



5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69년생** 시작부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81년생**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93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58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주세요. **70년생** 검소한 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 앞으로의 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82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4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59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날 것입니다. **71년생** 잠시 쉬는 것도 좋겠습니다. **83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95년생** 어렵게 곤경을 빠져나오니 이번엔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형법이 필요한 이유

뉴스를 보면 거의 날마다 무서운 범죄 소식이 들려온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서 가정을 파탄 내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큰 벌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법이 형법이다. 형법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면서 사회를 통제하는 기준선이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어떤 행위를 저지르면 범죄가 되는지 정하고,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규정한다. 말하자면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폭행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를 하면 왜 처벌받는지 그 근거를 담고 있는 게 형법이다.

이렇게 보면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처럼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다. 형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 보호다. 형법 같은 규정이 없다면 아마도 악육강식이 판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괴롭혀도 막을 방법이 없다. 형법은 그런 짓을 하면 처벌받겠다고 사회 구성원에게 경고한다. 경고는 범죄를 예방하고 일반 사람들이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어망을 갖추는 셈이다. 또 형법은 포악하고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다. 누군가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고, 사기를 당했을 때 국가가 범인을 처벌하고, 밤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형법이 있기에 가능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4			3		2		9
			9		4			3
8			2					
	2			5		9	7	
1			4	9	2			6
	6	7		4			5	
					5			8
4			8		6			
2		8		6			9	7

4					5			6
	7			1	3	9	4	
	6	2				5		
5	8		3	2				
	3						1	
			1		4		6	3
		4				2	5	
	4	7	5	6			3	
1			8					7

4	6	7	9	5	8	1	2	3
5	2	8	1	9	6	3	4	7
8	3	1	5	2	4	6	9	7
2	9	8	1	7	3	5	6	4
9	5	2	4	6	7	3	8	1
1	2	6	8	9	7	5	3	4
7	9	5	6	2	1	4	8	3
6	1	9	7	8	6	2	5	3
6	8	2	1	4	9	7	5	3

서울 초등생, 10년 만에 순유입... “강동·강남에 쏠린 것”

전국 6280개 초등학교 전출입 분석
서울 초등학생 순유입 834명 집계
교육특구·재건축 아파트 입주 영향

경기도, 1339명 빠져 10년 새 최대
충청권, 3년 연속 순유입 흐름 ‘뚜렷’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서울 초등학생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순유입이 발생한 곳은 6개로, 교육 여건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주택 입주가 이뤄진 지역이다.

19일 종로학원이 지난 5월 공시된 전국 6280개 초등학교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 초등학생 순유입(전입자수-전출자수) 인원은 83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초등학생이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강동구와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등 6곳뿐이었다.

강동구의 순유입 인원이 1752명으로 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원촌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시스

장 많았고 강남구 1331명, 양천구 848명, 서초구 795명, 노원구 193명, 송파구 163명 순이었다. 나머지 19개 구에서는 모두 4248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순유입 전환이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회복이라기보다는 강남·서초·양천 등 기존 교육특구와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

학생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 1339명이 순유출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순유출 규모를 기록했다.

전국 순유입 상위 지역에는 강남·서초·양천·대구 수성구 등 전통적인 교육 선호 지역과 서울 강동구, 인천 서구, 경기 광명·평택 등 대규모 주택 개발 및 아파트

입주 지역이 함께 포함됐다.

지방 권역 가운데서는 충청권의 순유입 흐름이 가장 뚜렷했다. 충청권은 2023년 229명, 2024년 703명, 2025년 400명으로 3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대구·경북권도 지난해 32명이 순유입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순유출에서 벗어났다.

제주와 강원, 호남권은 순유출이 이어졌지만 규모는 최근 3년간 감소했다.

부산·울산·경남권은 2023년 978명, 2024년 269명, 2025년 566명이 순유출됐다.

종로학원은 초등학생 이동이 주택 개발과 입주 물량뿐 아니라 향후 중·고교 진학을 염두에 둔 교육 목적 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3년 연속 순유입이 발생하고 대구·경북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시점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방권 중·고교 출신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기회가 부각된 시기와 맞물린다는 설명이다. 신도시 개발과 신규 주택 입주,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선발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지방 중·고교 출신 학생의 의대 지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방권 초등학생 이동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초등학생 순유입으로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25개 구 중 6개 구에만 순유입이 집중돼 서울 전체의 학령인구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특구와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 초등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의 3년 연속 순유입과 대구·경북의 순유입 전환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시기와 맞물리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이후 지방 중·고교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 이동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광화문광장서 여름 물놀이 즐기세요”

대형 수영장, 바닥분수, 공연 등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운영
무료 탈의실, 건조시설도 설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 일대에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모래 놀이터가 설치된다.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바닥분수와 탈의실, 건조시설 등도 함께 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1일간 ‘2026 서울썸머비치’와 ‘광화문광장 여름 상상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썸머비치는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행사장은 워터웨이브존과 플레이웨이브존, 플레이마켓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워터웨이브존에는 대형 수영장과 높이 8m의 워터슬라이드, 워터버킷 등이 설치된다. 플레이웨이브존에는 지름 12m 규모의 돔 형태 모래 놀이터인 ‘샌드 아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바닥분수에서 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트’가 처음 마련된다. 플레이마켓존에서는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광화문광장 명량분수와 한글분수, 터널분수 등 바닥분수 3곳도 가동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면 운영을 중단한다.

한글분수 인근 광장숲과 열린마당에는 무료 탈의실과 건조시설, 파고라 형태의 쉼터가 설치된다. 편의시설은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문화공연도 열린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마술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하루 2~3개 팀이 참여하며 관람료는 없다.

감사의 정원 앞에서는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된다.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9개 미션 가운데 3개 이상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경품을 주는 ‘미션 빙고 이벤트’가 열린다.

오는 25~26일과 다음 달 1~2일에는 감사의 정원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감사합시다’를 외쳐 기준 음량을 넘으면 경품을 주는 ‘데시벨 챌린지’가 진행된다.

개장식은 20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 서울시는 개장식 뒤 물놀이 시설과 수영장 수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 고교생, 中·日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학생 80명, 4개 권역서 20명씩 참여

서울 고등학생 80명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는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활동지를 둘러보고 탐방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 위원을 대상으로 ‘2026 학생자치 연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참가 학생은 모두 80명으로, 4개 권역에서 20명씩 참여한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학생들은 19일 중국 충칭과 시안으로 출발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20일 일본 도쿄, 중부교육지원청은 27일 중국 하얼빈과 연길을 방문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생들도 27일 중국 상하이와 난징으로 떠난다.

학생들은 인종근·윤봉길·이봉창 의사의

활동지를 비롯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관련 사적지를 방문한다. 현장 해설을 듣고 사전에 정한 탐구 주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교육과 현장 탐방, 사후 활동으로 구성됐다. 각 교육지원청은 출국에 앞서 독립운동사 강의와 탐구 주제 선정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18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방문했다.

탐방을 마친 뒤에는 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다. 탐방 기간에는 교육장과의 간담회도 열어 역사교육과 관련한 학생 의견을 듣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독립운동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학생자치 활동을 통해 역사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과원, AI 스타트업 PoC·투자연계 지원

오는 31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AI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6년 AI 클러스터 오픈이노베이션 연계·실증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AI 스타트업과 국내 대·중견기업을 연결해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검증(PoC), 투자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둔 설립 7년 이내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다. 신산업창업 분야 기업은 설립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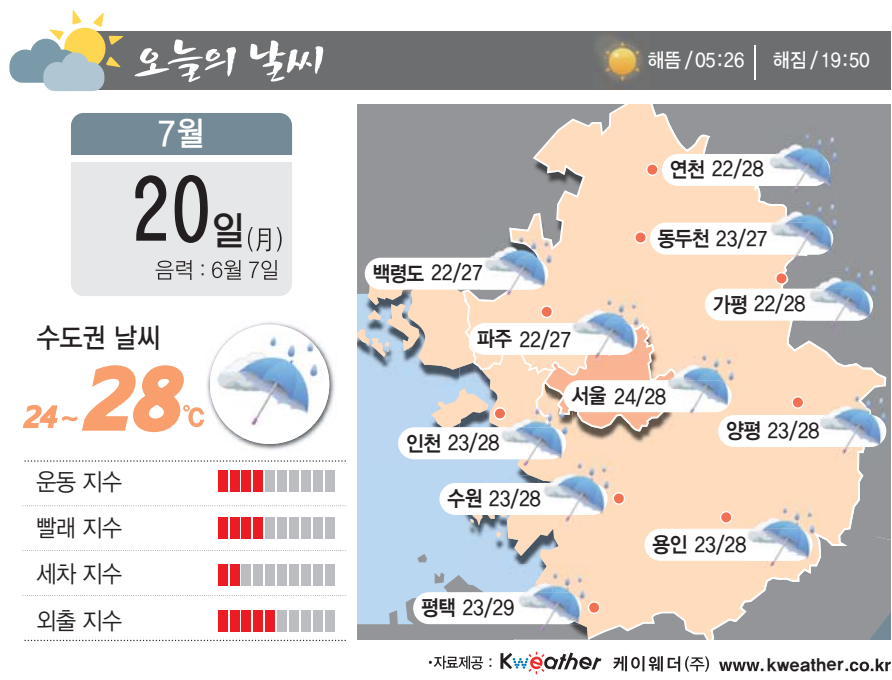
경과원은 AI 스타트업 20개사 내외를 선발해 기업진단,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IR 데모데이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후 대·중견기업과 매칭해 최종 선정된 5개 사에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PoC 실증 자금을 지원한다.

LIGA큐버, CJ ENM 등 5개 대·중견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며, 선정 기업에는 맞춤형 액셀러레이팅과 투자연계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트럼프 “미군 희생 매우 슬퍼...이란 MOU 중단 개의치 않아”
▲美중부사령부 “이란 추가 공습 종료...해안·미사일 시설 타격”
/사진 뉴스시스

▲“이란, 美 봉쇄 해제 한달 만에 9조원 원유 수출...중국행 유력”
▲중국 문샷, 개방형 AI 키미 K3 출시...“일부 성능 美 AI 앞서”

▲日방위상 “핵 정책도 금기 없이 논의해야”...비핵 3원칙 논쟁 재점화
▲베네수 임시대통령 “IMF서 지진 긴급지원금 5100억 확보”



풀무원, 1분기 호실적
美 두부·中 김밥 등
해외사업 흑자 확대
L1



Life

큐라클·인제니아
혈관신약 개발 속도
자본 유치 기대감
L2



토마토를 젤라또로... 섭취 제한없는 디저트 시대 연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트루젤라또
구희진 대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다. 식품 대기업들이 굳건히 장악하고 있는 빙과 시장에 오직 '로컬 농산물'과 '푸드테크'라는 무기 하나로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이 있다. 3년간의 치열한 R&D 끝에 2025년 6월 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로컬 기반 푸드테크 기업, '트루젤라또'의 구희진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로컬 농산물 기반 푸드테크 기업 창업
첫번째 원료 '광주 퇴촌 토마토' 선택
저당·저칼로리 '토마베리스윗' 출시

트루젤라또는 합성 향료나 색소 없이 과일과 우유 본연의 맛을 극대화한 저당·저칼로리 젤라또 브랜드다. 경기 광주의 신선한 퇴촌 토마토를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 '토마베리스윗'으로 디저트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구대표를 만나 그가 열어나가는 달콤하고 건강한 새벽의 이야기를 들었다.

◆ 가족의 아픔에서 피어난 아이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구 대표가 창업 전선에 뛰어든 계기는 극적이었다. 가족의 간병을 위해 공이 좋은 경기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접했다.

"입이 쓴 환자에게 시원하고 건강한 간식을 주고 싶었는데, 시중의 빙과류는 합성첨가물과 인공원료 범벅이더라고요. '우리 농산물로 건강하면서도 진짜 맛있는 젤라또를 만들 순 없을까?'라는 의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확실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빙과 산업은 고가의 설비와 까다로운 식품



구희진 트루젤라또 대표.

규제 탓에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막명 높은 분야다. 초기에는 최소주문수량(MOQ) 문제와 들쭉날쭉한 품질 때문에 위탁생산(OEM) 업체를 찾아 전국을 전전해야 했다.

"처음엔 20만 원짜리 소형 냉장고를 직접 메고 소비자 테스트를 했습니다. 술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제조·R&D·컨설팅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량 구조를 내재화하는 데 성공했죠. 스타트업도 식품 대기업과 같은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끈기는 로컬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2회 대상 수상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 관련 공모전 석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사업성을 검증받았다.

◆ 지역 특화원료 기반 저당·저칼로리 등 기술력 승부

트루젤라또의 핵심 경쟁력은 단연 '원재

료'와 '기술력'이다. 구 대표가 첫 번째 원료로 선택한 것은 경기 광주의 명물 '퇴촌 토마토'였다. 대부분 생과로만 소비되던 지역 특산물을 디저트에 접목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처음엔 다들 의아해하셨죠. 하지만 토마토는 당도와 산미의 균형이 훌륭해 젤라또로 만들면 엄청나게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냅니다. 3000명 이상의 향미 테스트를 거치며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토마토는 안 먹는데 이 건 또 먹고 싶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비로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대표 제품 '토마베리스윗'은 저당·저칼로리·유제품 프리(Free)를 구현해 '섭취 제한이 없는' 디저트를 지향한다. 기존의 다이어트 빙과류가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다량의 합성첨가물을 넣는 것과 달리, 트루젤라또는 자체 배합 노하우로 인공 원료

없이도 젤라또 특유의 쫄쫄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잡아냈다. 덕분에 까다로운 다이어터는 물론 환자, 노인, 그리고 생후 18개월 아이의 '인생 첫 아이스크림'으로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성주 참외로 만든 '참외 소르베', 전남 여수 해풍썩을 활용한 '썩 젤라또'를 비롯해 경기 광주의 매력을 담은 '경기 광주의 맛(수수락딸기풍당, 남한산성 포레스트 민트초코 등)' 세트를 선보이며 로컬 스토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맛쟁이토마토 푸드랩 '확장의 날개'

구 대표는 단순히 젤라또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자체 및 관공서와 협업체 '맛쟁이토마토 푸드랩'이라는 쿠킹클래스 및 외식창업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못난이 토마토를 활용한 레시피로 토마토 요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버려지는 B급 농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업사이클링'에 주목한 결과다.

"지역 농산물은 산지와 가까워 유통 과정이 짧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상태의 맛과 향을 담을 수 있습니다. 농가와 직접 소통하며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요. 중간유통 단계를 줄이고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한 덕분에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수 해풍썩 등 로컬 스토리 확장
쿠킹클래스·외식창업 컨설팅 운영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 목표"

◆ "엉덩이 떼고 움직이면 기회가 보여"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 두려움이 없었냐는 질문에 구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인생 모토를 공유했다.

"'엉덩이 떼다, 간다, 한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입니다. 고민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몸을 움직이면 다음 기회가 보입니다. 저 역시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앞으로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은지 묻자 유행을 쫓아 빠르게 커지는 브랜드보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꾸준히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으며 로컬의 가치로 세상에 달콤한 위로를 건네는 구희진 대표. 그의 멈추지 않는 연구와 실험력이 이끌어갈 대한민국 로컬 디저트 시장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트루젤라또를 들고 있는 소비자들.



토마베리스윗 젤라또

/트루젤라또

메트로 한줄뉴스

▲ "한국 축구 망했다"... 이강인도 공감한 구자철 작심 발언
▲ 북중미 월드컵 3·4위전 10골 난타전... 잉글랜드, 프랑스 꺾고 3위

▲경기 중 AI 기술 활용한 MLB 메츠 "규정 완벽 준수"
▲나훈진 '호프', 개봉 5일 만에 누적관객 200만 ↑ "올해 최단"



▲정부, 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에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여수세계세탁박람회, 한 달 앞... "손님 맞이 준비 착착"

/사진 뉴시스